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GWANGJU
2021.7.2-7.4

Social Economy Fair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

—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

2021.7.2^(금)
10:30-12: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 1-2 (201~204호)

공동주관 사회적 금융 포럼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행사문의
T. 02-2088-3288
E. info@svsfund.org
E. forum@socialfinance.kr

www.socialfinance.kr

Social Finance

Social Finance

IMPACT

Social Finance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GWANGJU
2021.7.2-7.4

Social Economy Fair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

—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

2021.7.2 (화)
10:30-12: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 1-2 (201~204호)

공동주관 사회적 금융 포럼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행사문의
T. 02-2088-3288
E. info@svsfund.org
E. forum@socialfinance.kr
www.socialfinance.kr

프로그램

진행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발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토론

유승곤 행복나눔재단 경영지원팀 팀장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본부장
박정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투자팀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임팩트 투자 활성화 현황 - 빛과 그림자

2021년 07월

임팩트스퀘어도현명timothydho@impactsquare.com

0. 논의의 배경

사회적금융포럼의 서베이와 생태계에서의 논의, 투자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글로벌 논의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쯤 와있고 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하기 위한 발제입니다.

(1) 서베이: 사회적 금융 기관 25개사 (포럼 24개사 중 23개, 그 외 2개 기관 추가 응답)

사회적 금융 포럼 참여기관

IFK임팩트금융(유), (주)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나눔과미래, 동작신탁,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주)비플러스,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세상, (사)피피엘, (주)소풍벤처스, ARK 임팩트자산운용(주), (주)오마이컴퍼니, (주)임팩트스퀘어,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재단법인 밴드, 주민신탁, (주)크레비스파트너스, (유)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재)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 혁신금융(주), (주)한국사회혁신금융, (재)함께일하는재단

(2) 투자자로서 개인적 경험과 글로벌 논의와의 비교

GIIN Survey는 매년 시행되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의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아직 2021년 보고서는 출간되지 않아서 2020년 보고서를 참고하여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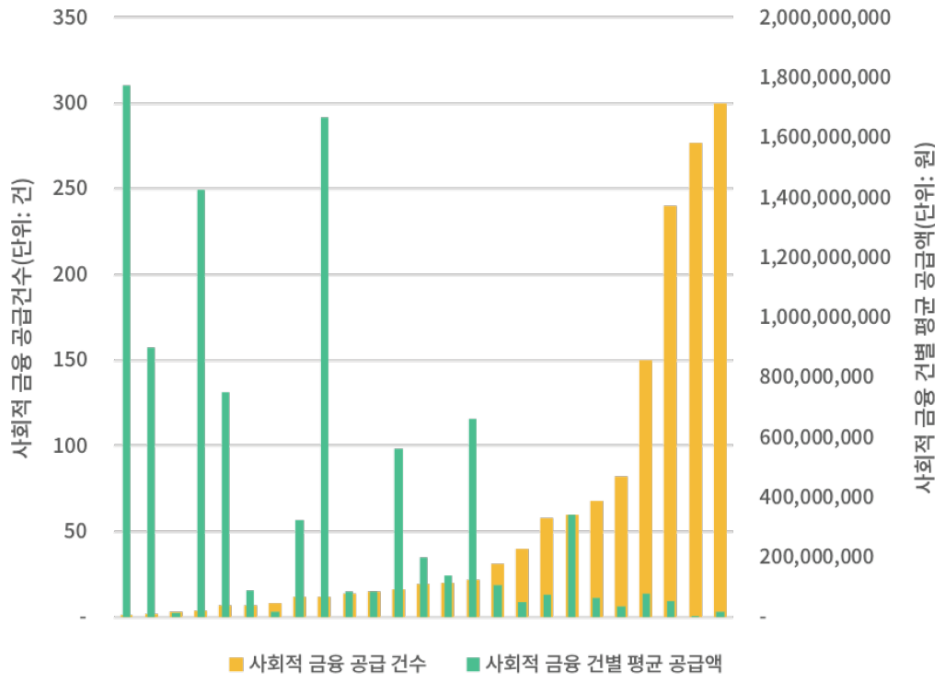
1. 현황

명확한 것은 규모의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생태계의 다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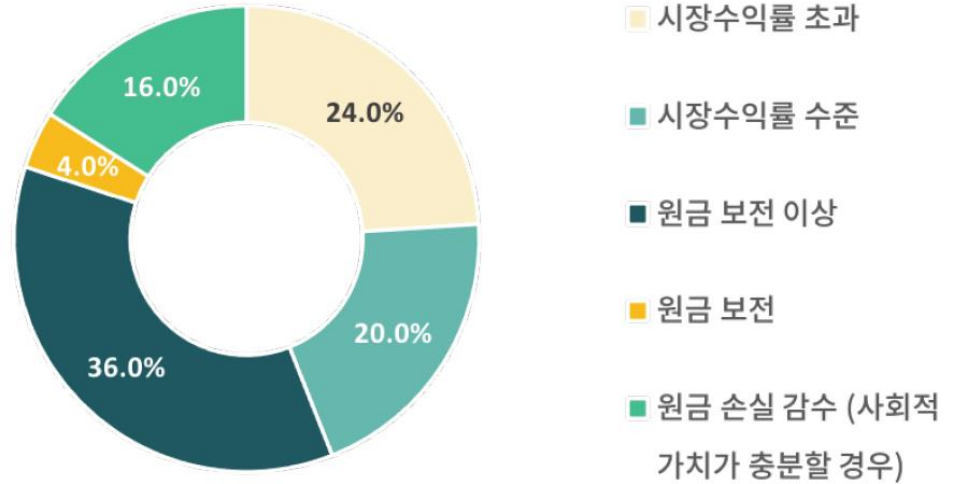
- 임팩트 펀드는 약 7천억원
- 서베이의 25개 금융기관 운용자산은 1.4조원, 연간 공급액은 1.4천억원

- 대출(28.8%), 투자(25.0%), 전환사채(15.4%), 펀드 출자(11.5%) 등 공급방식 다변화
- 요구수익률이나 수익률 추구 경향 다변화

2020년 연간 사회적 금융 공급 건수 및 건별 평균 공급액 (n=25)



수익률 추구 경향 (n=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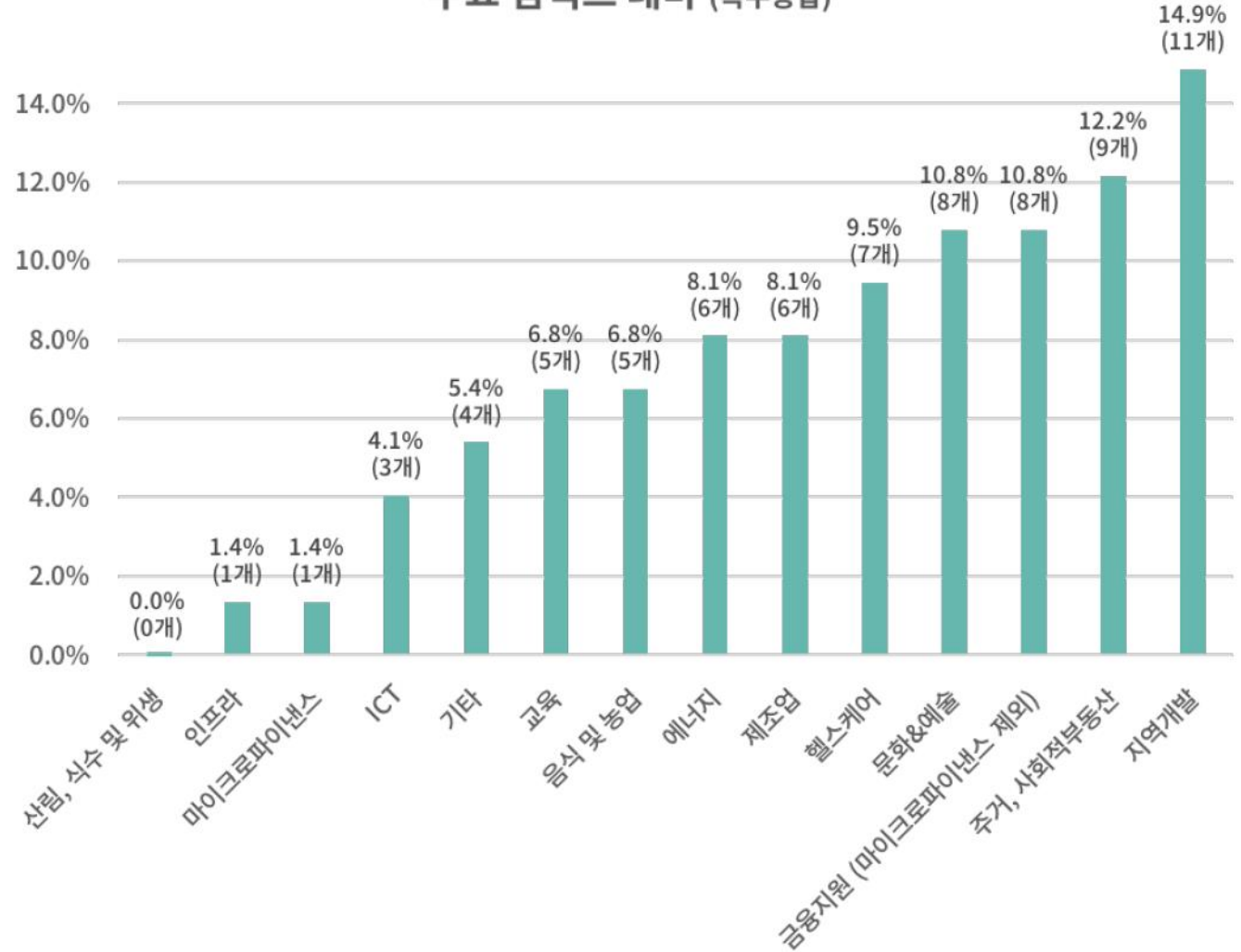


1. 현황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고려된 주요 임팩트 테마는 지역개발이나 주거, 부동산, 그리고 금융지원, 문화예술 분야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전체 응답 기관의 거의 절반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고려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문화&예술, 금융, 주거가 그간 가장 많이 고려된 영역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글로벌에 매우 관심이 높은 에너지를 비롯해서 산림, 식수 및 위생 또는 인프라, 마이크로파이낸스 등이 생각보다 크게 고려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은 글로벌의 현황과 차이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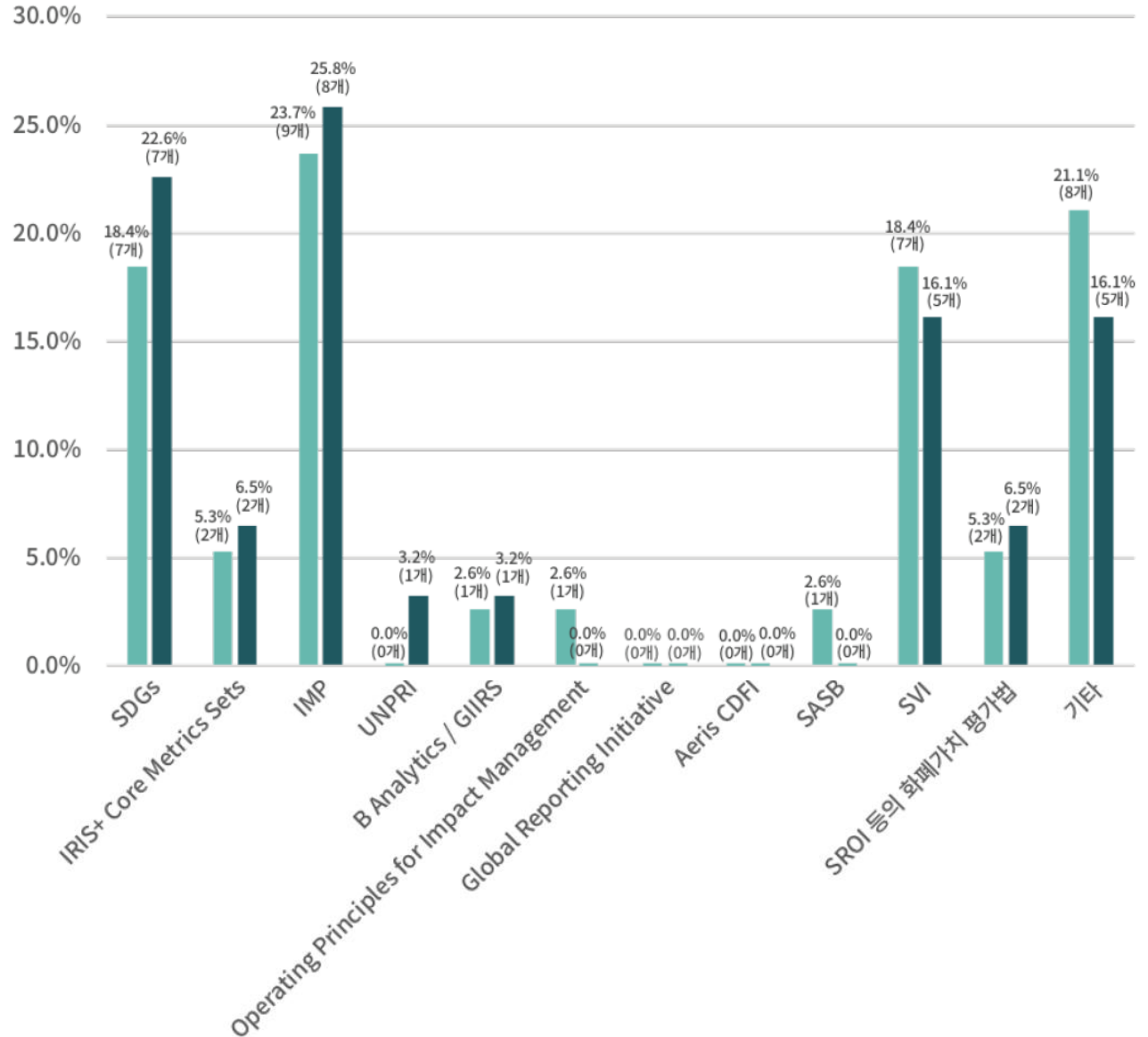
주요 임팩트 테마 (복수응답)



1. 현황

대부분이 사회적가치 측정이나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투융자 의사결정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활용하는 사회적가치 측정평가체계로 SDGs나 IMP가 다수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 충분한 활성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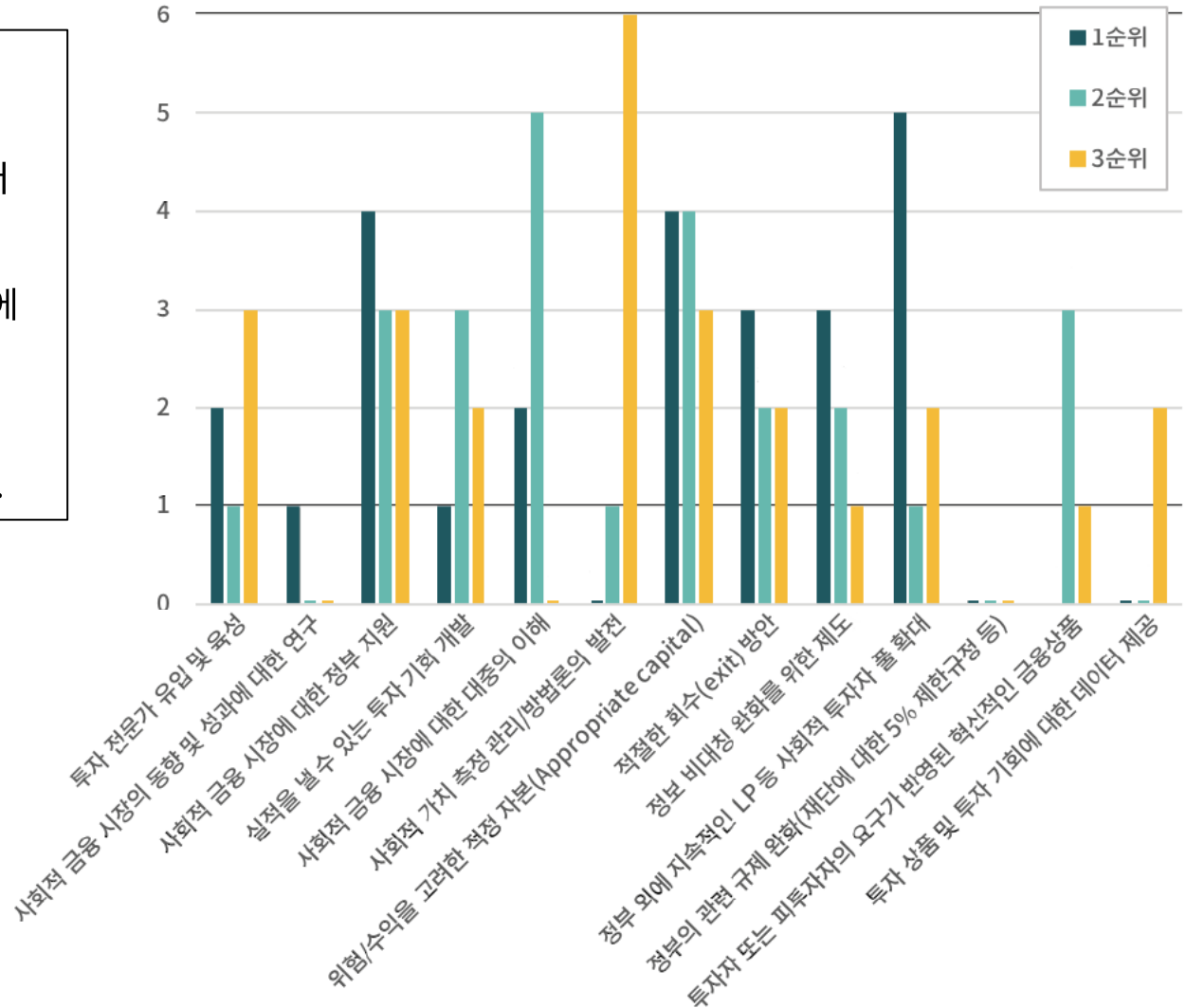
- 사전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84%,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72%가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 개선과제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들은 민간 LP 확충, 적절한 제도, 회수방안 등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n=25)



- 전년대비 21년의 사회적 금융 공급의 규모와 건수가 증가 또는 유지된다는 의견이 88%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의견입니다.
- 그러나 동시에 LP 부족과 임팩트 워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대중의 이해와 회수방안도 위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개선과제

- GIIN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임팩트 펀드의 LP의 구성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 보다는 민간의 흐름이 강하고, 다양한 금융조직의 참여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Table 9: Changes in asset managers' sources of capital, among repeat respondents

n = 38; figures in USD millions.

Source of capital	2015	2019	CAGR
Foundations	670	1,642	25%
Family offices/HNWIs	1,964	3,943	19%
Diversified financial institutions	3,886	7,037	16%
Retail investors	4,012	5,534	8%
Pension funds or insurance companies	5,285	6,891	7%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2,851	3,670	7%
Fund of funds	1,186	1,490	6%
Endowments	176	195	3%
Other	636	3,169	49%
Total	20,667	33,57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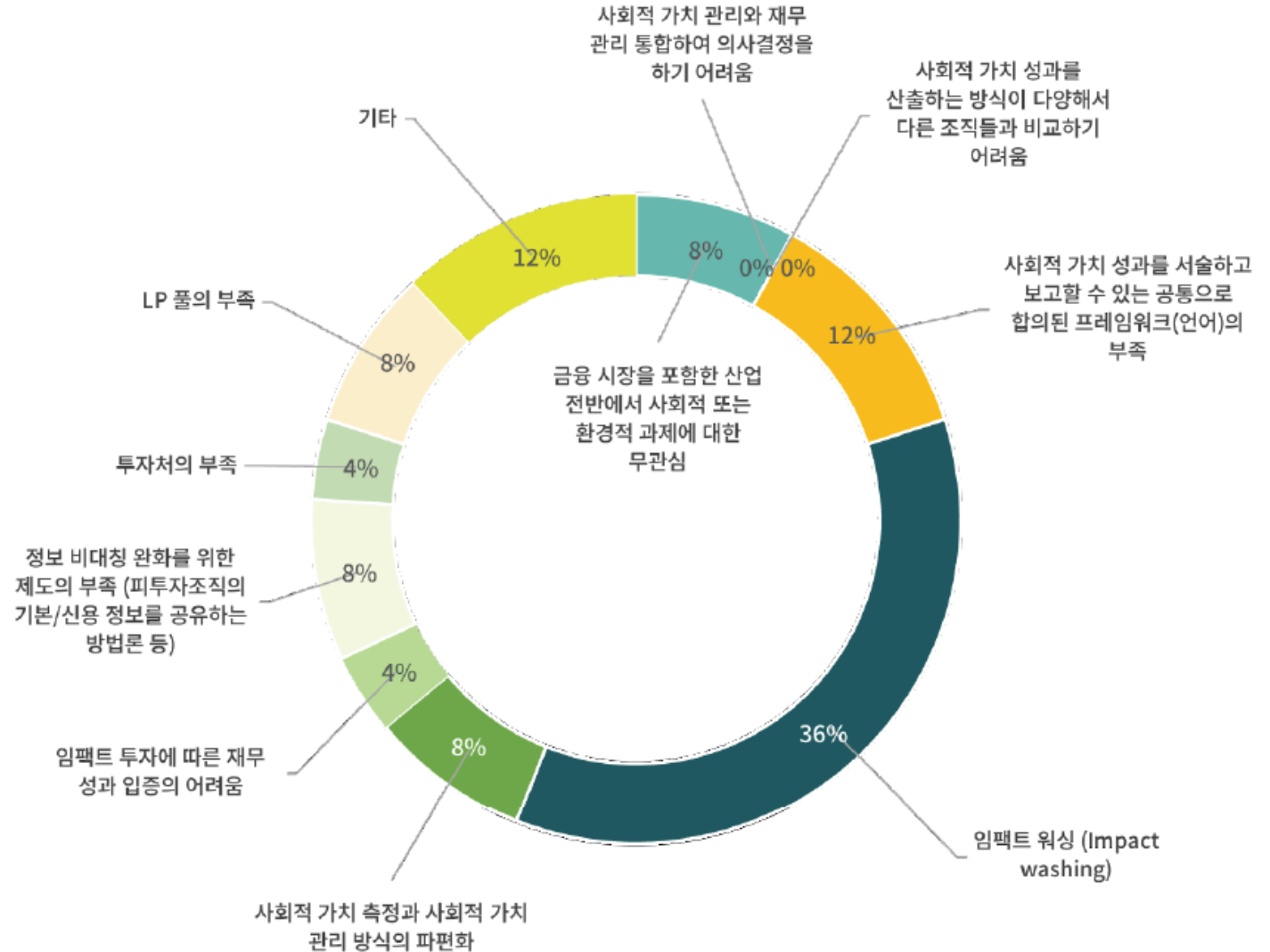
Note: One outlier has been excluded that drove significant changes in 'endowment' and 'other.' Both have been included in 'other' for this analysis. While the 2020 survey specified the inclusion of both 'banks and credit unions' as part of diversifi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2016 survey only specified the inclusion of 'banks.' Several respondents were unable to provide a break-down that aligns with these sources of capital; these responses have also been captured in 'other.'

Source: GIIN, 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2. 개선과제

- 임팩트워싱이 가장 큰 위기로 지목되고, 그 외의 답변에도 사회적 가치 측정이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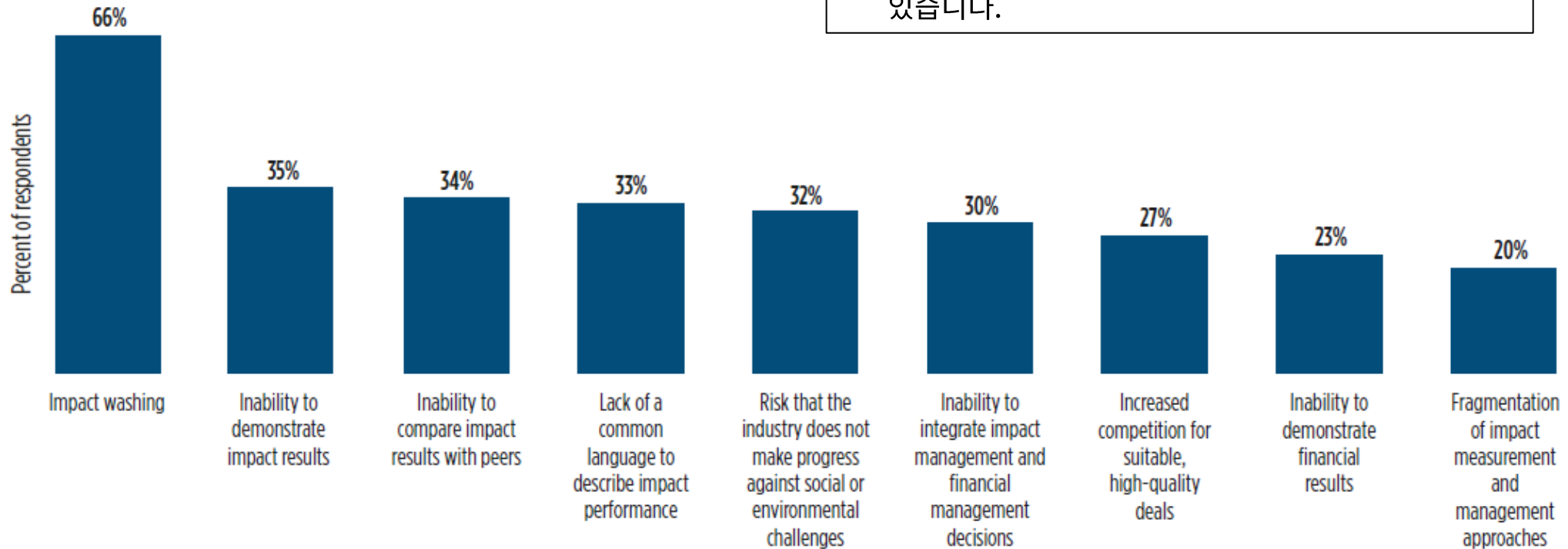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n=25)



2. 개선과제

Figure 12: Greatest challenges facing the market over the next five years

n =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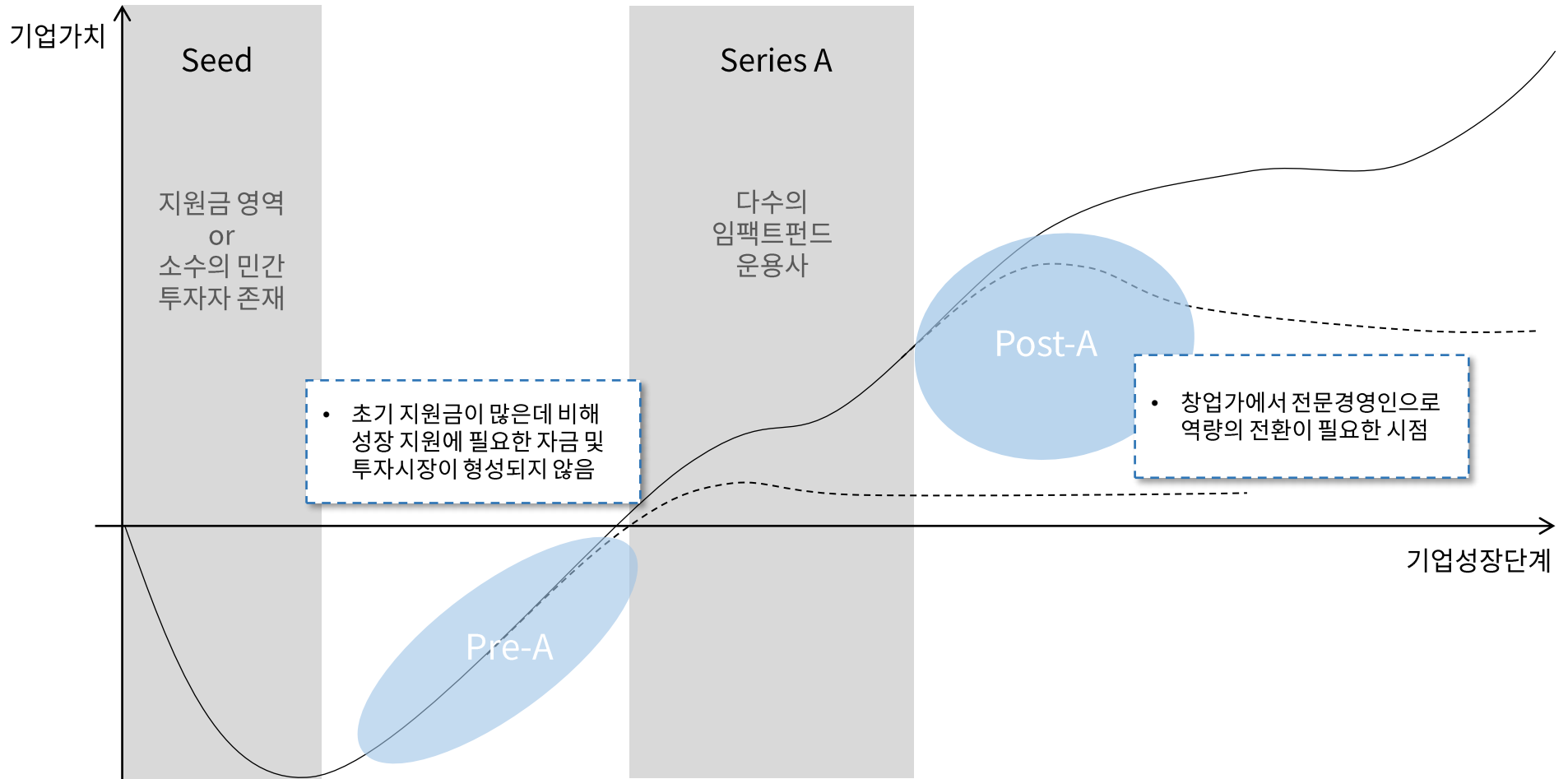
- GIIN의 보고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임팩트워싱이 가장 큰 위기로, 그리고 다수의 사회적 가치측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어서 나오는 이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Note: Each respondent selected three challenges. Indicators are ranked in order of the number of respondents that selected each as a challenge.

Source: GIIN, 2020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3. 경험적 논의 - 투자 생태계 캐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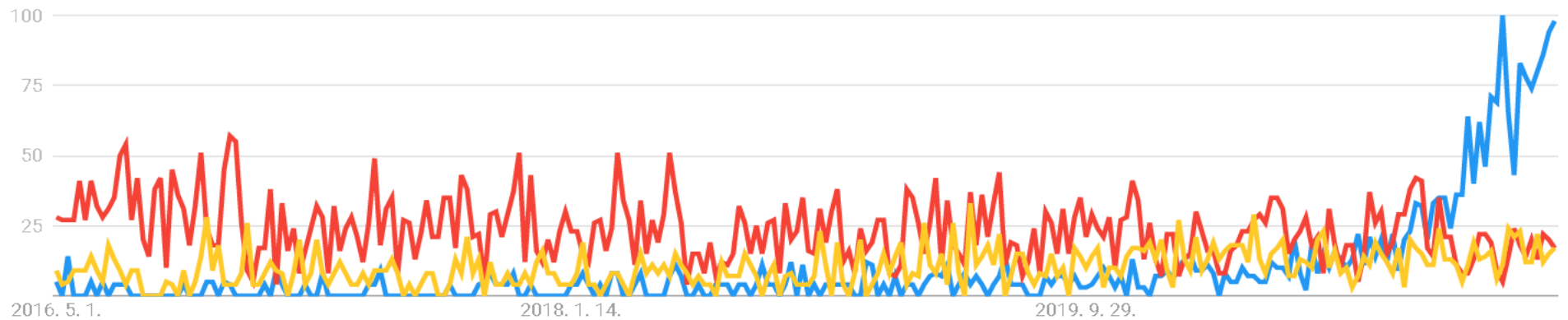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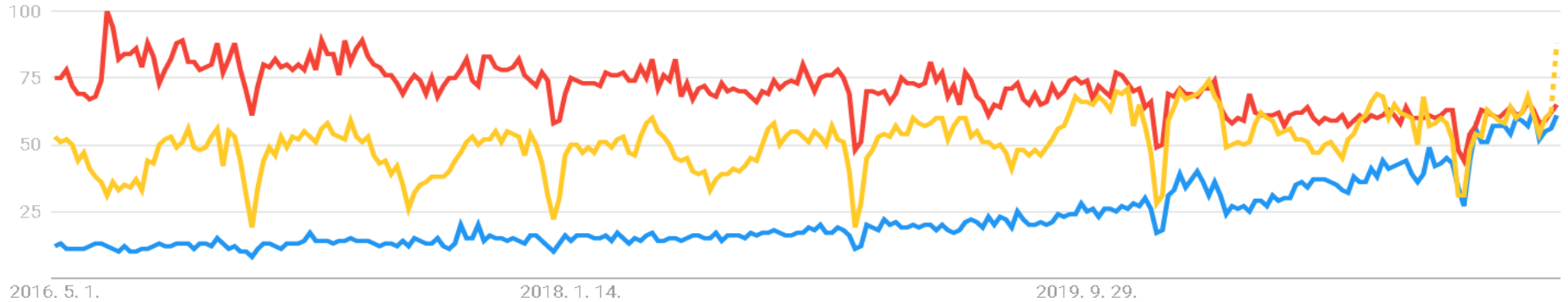
정부의 드라이브에 의하여 빠르게 다수의 임팩트펀드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금융 생태계에서 빈 부분이 많아서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지기에는 난점이 다수 있습니다.



✓ 자금이 집행되는 속도에 비해 다수의 초기기업이 성장하여 투자대상이 되는 필요시간 사이에 간극이 발생

3. 경험적 논의 - ESG의 급성장

ESG의 급성장은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 기회이자 위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접 자금이 풍부해지는 것은 잘 활용하면 큰 배후세력이 생기고 임팩트 조직들의 협업처가 생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선순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생태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일종의 성장통을 겪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자체적인 생태계적 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돈이 엄청 풀렸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내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투자 받은 곳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 좀 보여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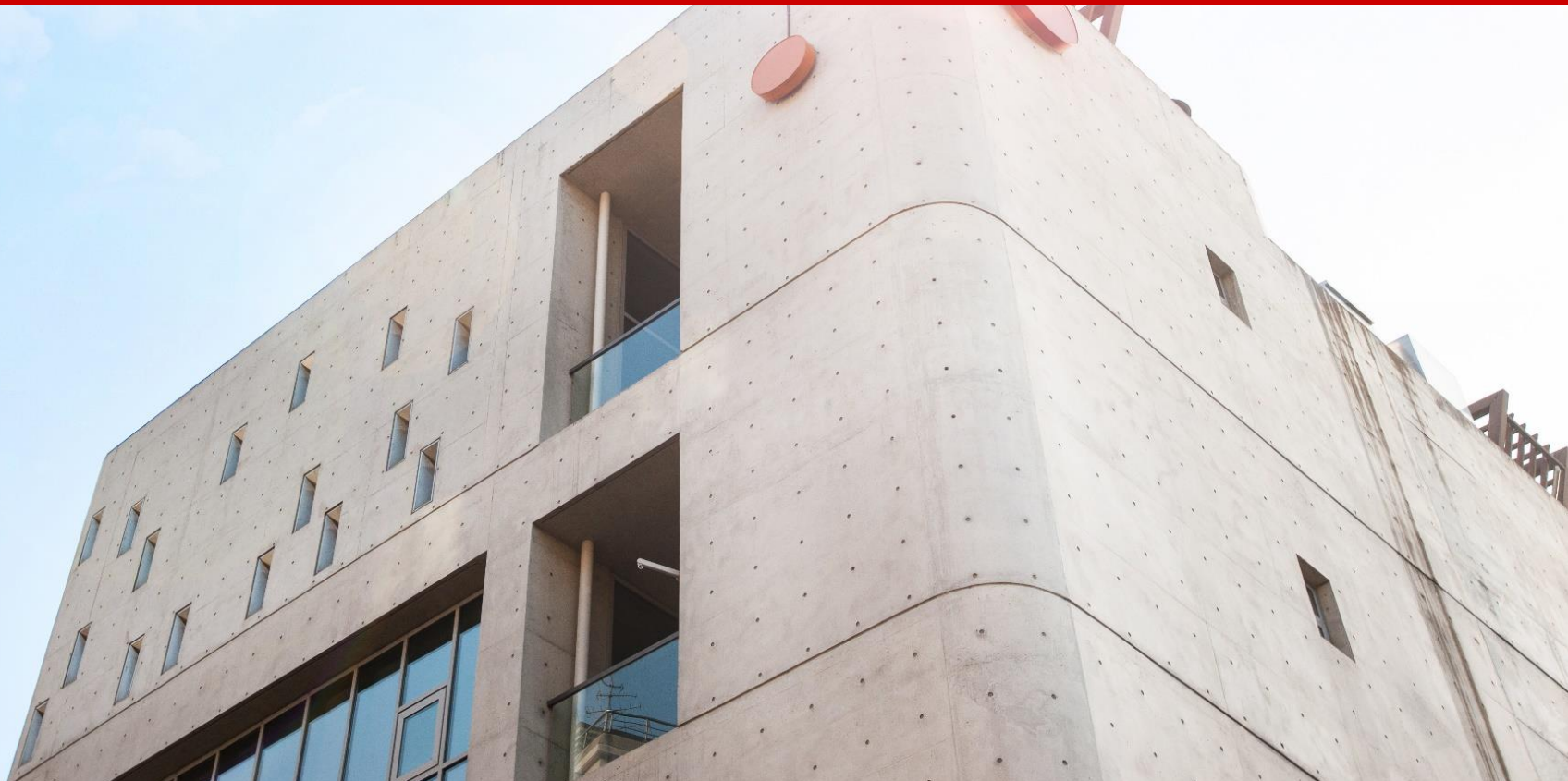
“임팩트 투자자도 보통 투자자와 크게 다르지 않던데?”

Q&A

2021년 07월

임팩트스퀘어도현명timothydho@impactsquare.com

행복나눔재단과 임팩트 투자





행복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한 SK그룹 사회공헌 재단으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합니다.

사회변화 프로젝트 개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모델 개발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확산

사회 변화 임팩트 확대 위한
인재 발굴, 육성 및 교류 증진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위한 **촉매 자본 역할**

Biz. 모델 개발/확산

-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16개)
- 우수 모델 발굴/육성프로그램 운영

인재 양성

- 사회적기업가 MBA 개설
- 대학 내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및 교과 지원

사회적 금융 공급

- 사회적 가치 기반 임팩트 투자
- 임팩트 펀드 참여 (정책/민간)
- 청년창업투자지주 설립/지원

SV 측정을 바탕으로,
기존 투자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투자 시도

다양한 투자 구조

임팩트 테마
투자 대상
투자 방식

인센티브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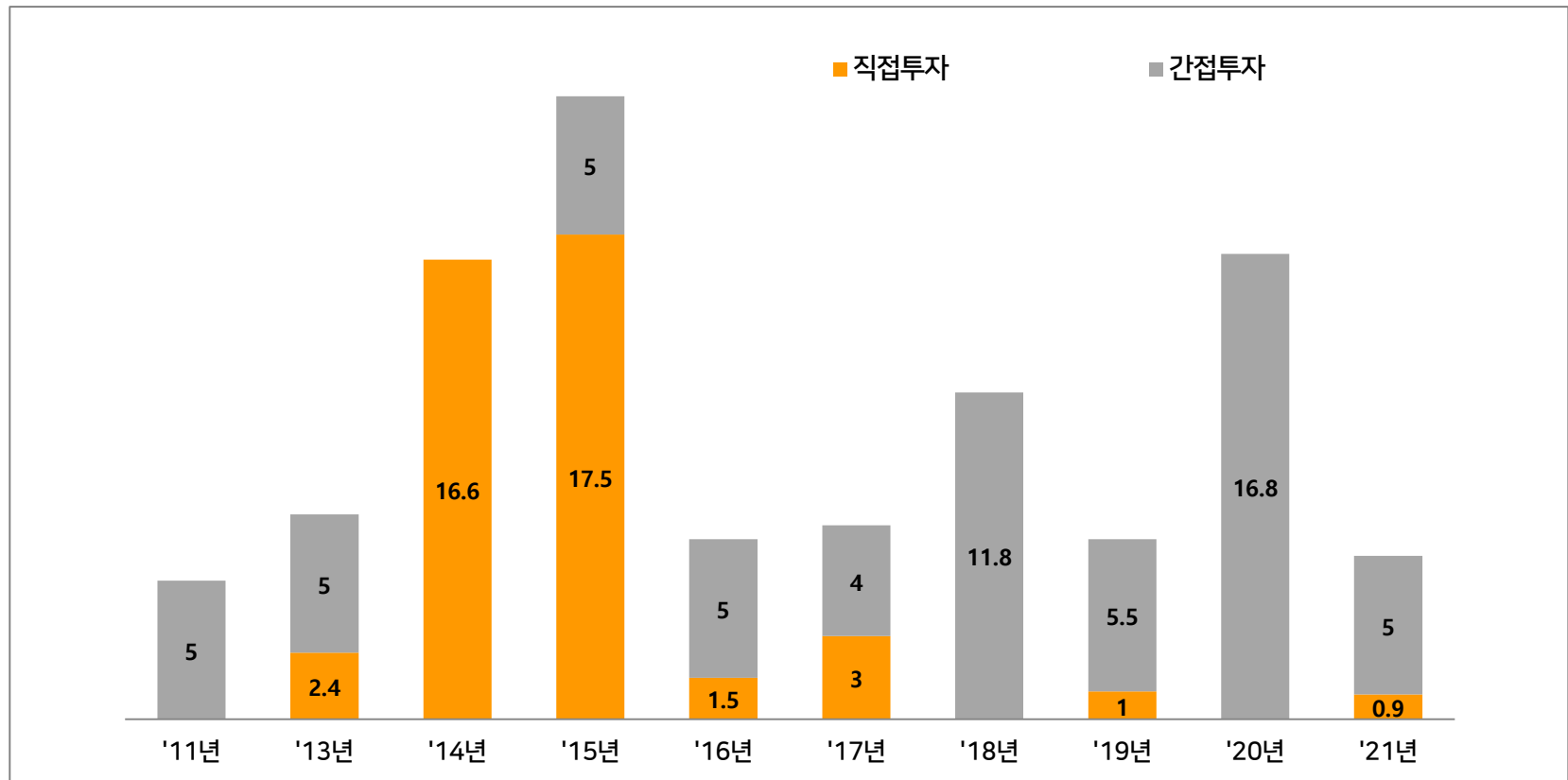
투자 구조 내
성과 지표 및 보상 탑재

투자 현황 -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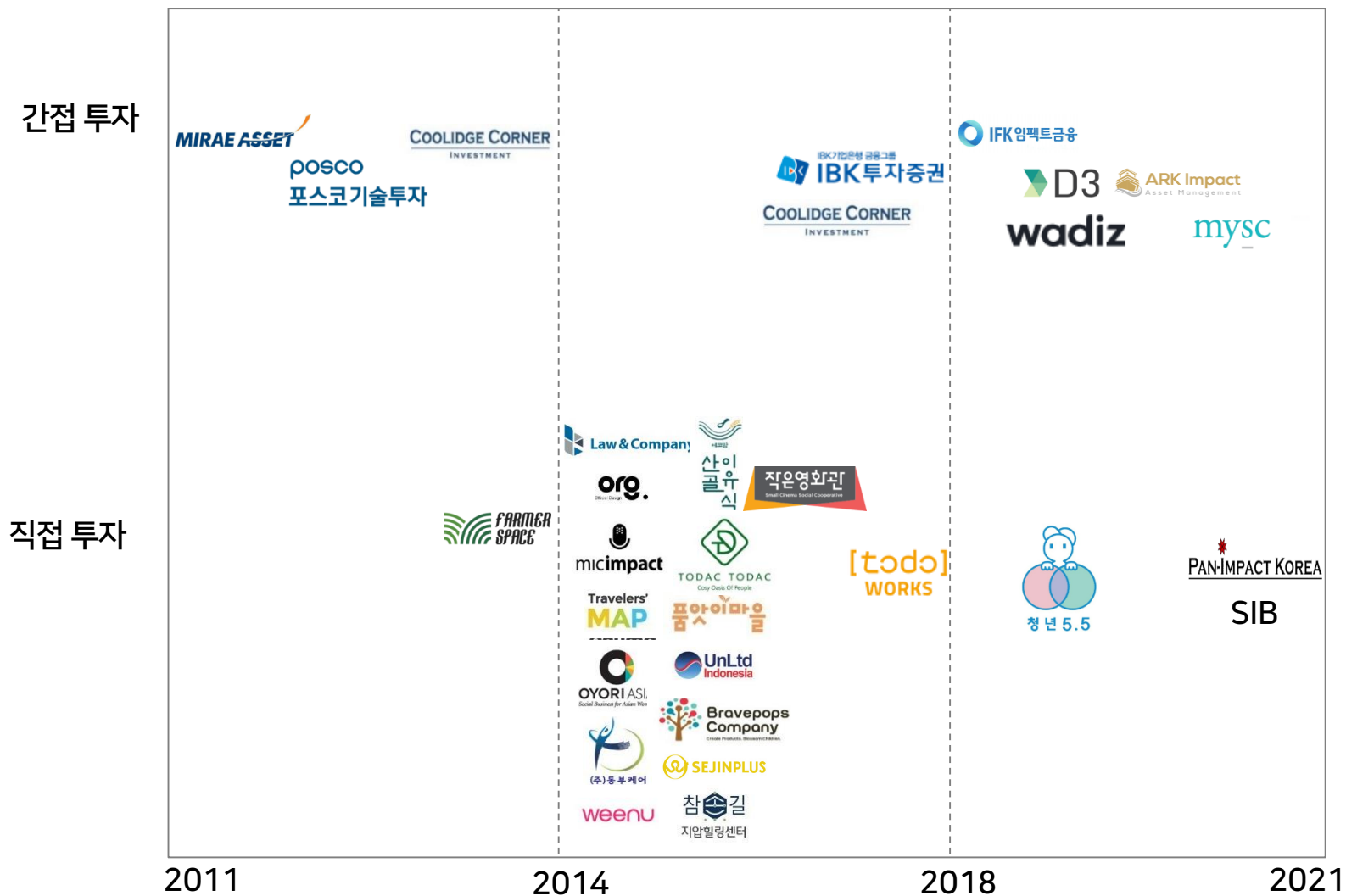
✓ 누적 투자 31건, 106억 투자

- 직접 투자 : 총 43억원 (18개 기업, P2P 1건, SIB 1건)
- 간접 투자 : 총 63억원 (10개 펀드, IFK 출자)

(단위: 억원)



투자 현황 - 투자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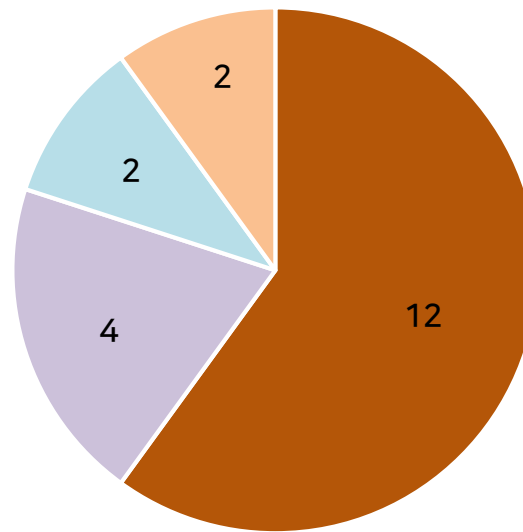


투자 현황 - 대상 및 방식

✓ 투자 대상

: 협동조합, 프로젝트, 해외 등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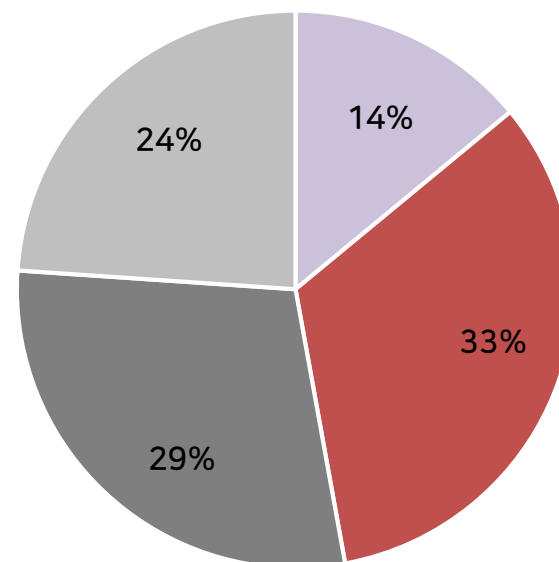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해외
- 프로젝트



✓ 투자 방식

: 메자닌, 대출 투자 등 다양하며
여러 개 투자 방식을 결합하여 투자

- 주식형
- RCPS
- CB
- 대출



투자 현황 - 임팩트 테마

■ 교육



■ 취약계층 고용



■ 마이크로 금융



■ 지역 개발



■ 음식/농업



■ 정보 비대칭 해소



■ 문화/예술



■ 업사이클링



■ 심리 건강



■ 노인 돌봄



■ 장애



투자 현황 - 사회적가치 측정과 인센티브

✓ 투자 시 성과 목표 합의 반영

구분	지표	비고
Biz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적용
Social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의 멀티플렉스 방문 대비 절약한 교통비 총액 • 신진 예술작가의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득 개선분 • 연평균 취약계층 고용 인원수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시간 • 청년들의 대출 이용건수 * 금융비용 절감액 • 상담사별 상담 시간 * 시간당 비용 총액

✓ 성과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시 배당률, 이자율 조정/면제

목표달성률	120%이상	110%~	100%~	90%~	90% 미만
배당률, 이자율	0%	1%	2%	3%	4%

[토닥토닥 협동조합]



- 조직 형태 : 협동조합 (직원 조합)
- Biz. 모델 :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상담 공간 겸용 카페 운영
- 사회적 가치
 - 학교/복지관 등 B2B상담, 방문/카페이용/유선 B2C상담 등 다양한 고객 유입 경로
 - 기존 상담센터 대비 50% 수준의 가격 경쟁력
 - 편안한 공간에서 적정 가격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대중의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개선
 - 무료상담, 무료검사, 개인상담 실적을 종합하여 인센티브 Scheme 적용
- 투자 내역
 - 대출 투자, 4년 만기 상환 완료
 - 인센티브 : 경영 목표 달성 100% 이상, 이자율 2%

[Unlimited Indonesia] * 비영리단체 ('Unlimited Network' 의 인도네시아 지부)



- Biz. 모델
 - 인도네시아 內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액셀러레이터
 - SE 단계별(창업기/초기성장기/성장기) 구분하여 육성 및 투자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
- 사회적 가치
 - 인도네시아 SE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빈곤/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이에 따른 수혜자 확산 및 고용 창출
 - 재단 투자분을 재투입한 육성 기업의 성과 창출 실적으로 인센티브 Scheme 적용
- 투자 내역
 - 대출 투자, 4년 만기 상환 완료
 - 투자 인센티브 : 경영 목표 달성 120% 초과 달성으로 이자율 0%
 - AVPN 15년 컨퍼런스를 통해 발굴, JP Morgan, 아름다운가게와 공동 투자

[토도웍스(주)]



- Biz. 모델 : 휠체어 파워어시스트 제조업
- 사회적 가치
 -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를 낮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기존 대비 1/3 수준) 제품 접근성 개선
 - 기술 혁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
- 투자 내역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중
- 재단 프로젝트 연계
 - 세상파일 '휠체어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 휠체어 사용 만 6~13세 아동 (전국 2,600명 추정) 전원에게 파워어시스트 제공 및 활용 교육
 - 프로젝트 기간 3년, SK 외 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 자금 펀딩 (40억)
 - 21.3월말 현재 누적 1,600여명의 이동성 향상



["청년5.5" P2P 투자]

• Biz.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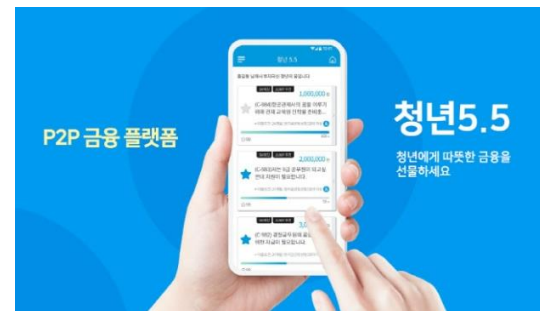
- 크레파스솔루션(주)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및 P2P 플랫폼을 활용
저소득 청년의 신용 평가 및 대출
- 일반 투자자와 재단 투자금 50:50 매칭을 통해 신속한 대출 실행

• 사회적 가치

- 신용 등급이 없는 청년층에게 비금융권 대비 저금리의 소액 대출 실행(평균 16.5%→5.5%)
- '대안 신용 평가'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금융 접근성 제고
-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투자 내역

- P2P 매칭형 대출(1억원)
- 재단 SIT 참여 기업 "크레파스솔루션" 과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
- 누적 255명의 청년에게 재단 매칭 대출 실행 ('21.3월 기준)



다양한 맞춤형 금융제공 투자자 풀 확대

- 비금융업 & 공익재단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업별 형태/상황 맞는 다양한 투자 방식 허용

장기 인내 자본 투자 확대

- 사회적 경제의 성장 속도 감안 8~10년 이상
(재단 평균 투자기간 4~7년, 기간 연장 중)

사회 문제 해결 성과 기반 Impact 확대

-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활용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 사례 구축 및 성과 측정

The logo for the Happiness Sharing Foundation features the Korean text '행복나눔재단' in a dark grey, sans-serif font. A red circle is positioned above the character '눔', and a smaller orange circle is positioned below the character '재'.

공공부문 임팩트 금융 현황 및 이슈

(2021.7.2.(금))

0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

-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금융을 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
 -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상업성¹⁾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투자
 - 소셜 임팩트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 이익을 미치는 바른 영향력
 - 사회적 금융의 유형 중의 하나²⁾
- 전반적 현황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2) 이후, 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의 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성에 긍정적 신호
 - 다만, 국내 임팩트 금융은 정부 주도로서 정책 변동의 위험성이 큰 편이며,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생태계 구성에는 미흡하다는 평가
- 공공부문의 임팩트 금융 현황 및 관련 이슈
 - 임팩트 금융 본연의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Scale-Up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임팩트 금융의 역할 검토
 -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팩트 금융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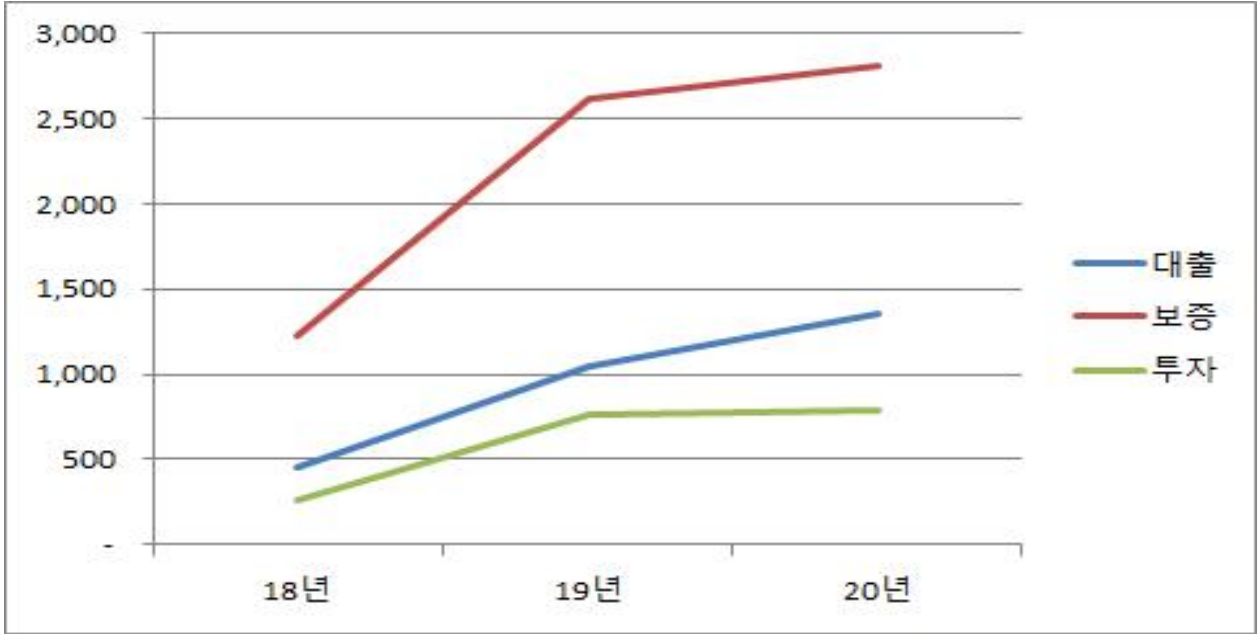
1) 원금 회수 + alpha

2) 임팩트 투자는 때론 사회적 금융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나, 사회적 금융은 미소금융, 공동체 금융, 협동금융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1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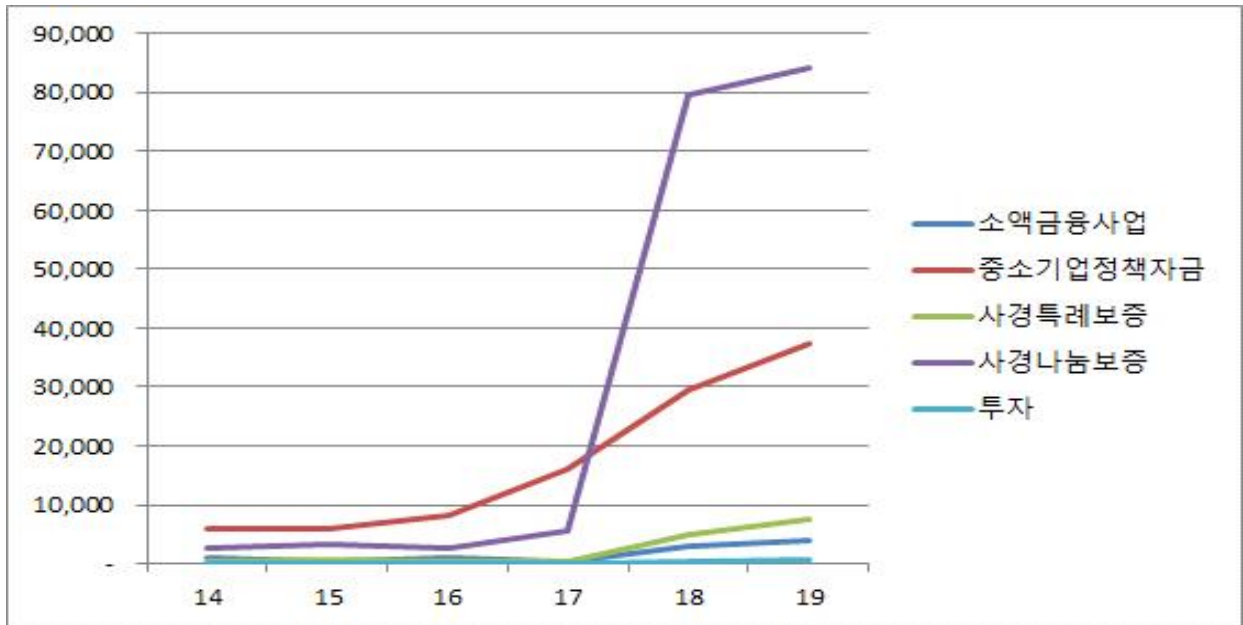
1 공공부문 자금공급 현황

(20년 기준, 단위: 억원)



2 정책자금 연도별 활용 현황(소액금융, 정책자금, 보증,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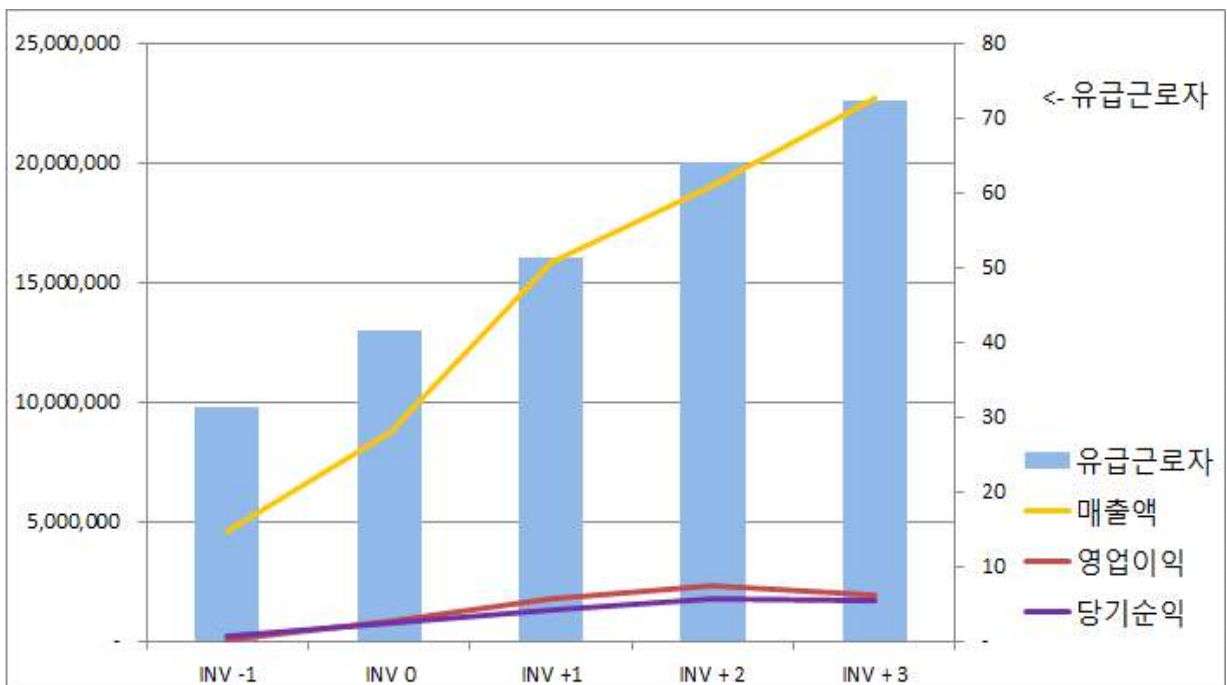
(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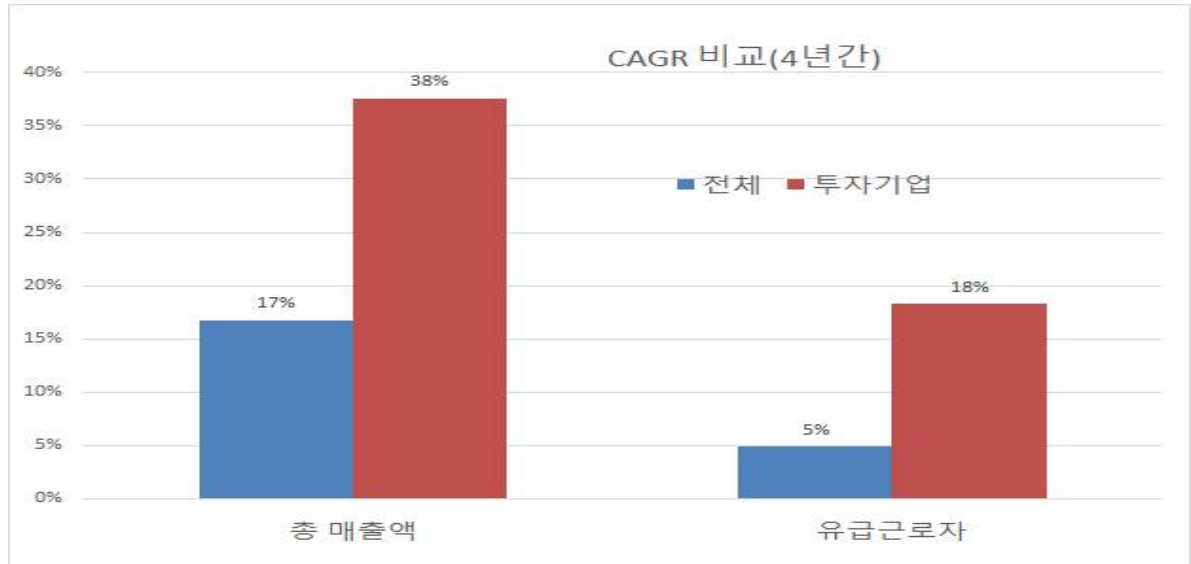


2 공공부문 임팩트 금융

1 모태펀드

- (개념)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모태펀드 출자 현황)
 - * 고용노동부 출자 약정금은 총 175억원 (붙임1 참조)
-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붙임2 참조)
 - (목적) 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이를 통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현황) '20년 기준 사회적기업 33개 대상 총 213억 원 투자(누적)
 - (투자성과) 투자조합의 투자 이후 5년간 성과 현황(인증SE 중심)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과 투자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비교>

②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 지자체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근거 마련

* (조례) 광역지자체 12개, 기초 지자체 41개 / (기금)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6개

* (현황)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조성 현황 (붙임 3 자료 참조)

③ 공공 연계 자조금융

○ 대부분 투자보다는 대출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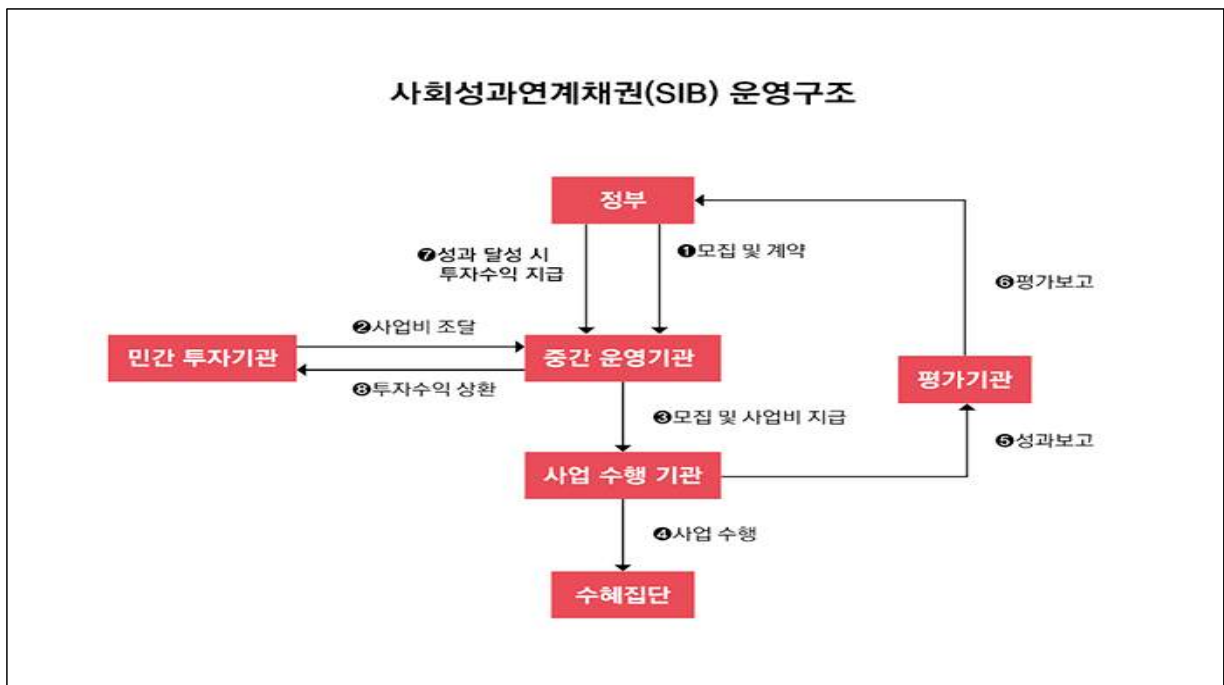
< 공공 참여 자조기금 현황 ('21.3. 기준) >

구분	명칭	내용	비고
민간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 사회적경제조직 자조기금 -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사업 실시	- 270여 개소 가입 ('21.3. 기준) - (규모) 약 195억 원 ('21.3. 기준) - (운영) 재단법인 밴드
지역 민간	부산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 지역 공공기관 참여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 대출 및 지원금	- (지역) 부산 - (규모) 약 30억 원 - (운영)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지역 민간	인천사회적경제 활성화공동기금 (I-SEIF)	- 지역 공공기관 참여 - 대출	- (지역) 인천 - (규모) 약 20억 원 - (운영) 사회연대은행
지역 민간	강원피크닉펀드	- 모태펀드, 지역기업 등 참여 -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대출 지원	- (지역) 강원도 - (규모) 약 32억 원 - (운영) 소풍벤처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민간	청년임팩트투자펀드 (하모펀드)	- 지역기업, 지역은행 등 참여	- (지역) 경상남도 - (규모) 약 22억 원 - (운영) MYSC,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4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개요

- 사회성과보상사업(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
 -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으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성과급 투자 방식)



< 국내 SIB 대표 사례 (‘21.3. 기준) >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목적)	규모(원)	운영기관
서울 (‘16)	서울 제1호 SIB	-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경계선지능 아동) 교육을 통한 지능 및 사회성 향상	- (유치)10억 - (지급)13억	팬애택트코리아 등
경기 (‘18)	해봄프로젝트 (경기 제1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고용복지통합서비스, 재무컨설팅 등 제공 등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	한국사회혁신금융 등
부여 (‘20)	치매 안심구역 조성	- 인공지능동봄, 전문인지훈련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진행중	팬애택트코리아 등
서울 (‘21)	취약계층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 (서울 제2호)	- 청년 실업 해소 - 직무교육 실무훈련 취업지원 멘토링 등 제공	진행중	팬애택트코리아 등

5 클라우드펀딩

진흥원 클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

- (클라우드펀딩) 시제품 홍보 및 사업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클라우드펀딩(후원형/증권형/대출형) 운영을 지원
- 플랫폼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펀딩 마켓, 투자오디션 및 사후관리 등 실시 (붙임자료 4 참조)

클라우드넷(예탁결제원)

- 클라우드펀딩 사이트 내 사회적기업·청년기업 전용관 운영
- (현황) '16~' 21.6. 기준 사회적기업 총 40개, 30억 이상 투자유치
- (중개플랫폼)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6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운영

- (개요)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內 관련 내용

-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에 포함
- 금융중개기관의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계획)

- (기관현황)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붙임자료 5) 참조

3 임팩트 금융 관련 이슈

1 구조적·제도적 문제점

- 임팩트 금융의 인증 사회적기업 투자 비중
 - 한벤투 등 임팩트펀드의 인증 사회적기업 투자 비율 낮음
 - 단, 모태펀드의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등 투자비율은 60%선(규정)
 - 검토 필요 사항
 - 인증 사회적기업의 배당 제한: 법령상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만 함
 - 투자사들이 Exit 고려시 한계로 작용(투자에 소극적)
 - 현실적으로 배당성향 33% 초과? CB의 경우 이자지급은 배당과 무관 (모태펀드, 한벤투, 성장금융의 경우 CB 비중이 높음)
- 非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문제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에 대한 회수의 어려움
 - 대안 모색 필요(예: 당사자들과 협약으로 추가 출자분을 회수)
- 임팩트 투자 공급, 관련 인력의 지역별 격차
 - 투자기관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임팩트 투자 양극화 우려

< 관련 설문조사(사회적 금융 포럼) >

사회적금융공급기관 23개 중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금융 공급을 50%이상 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5개

- 지역의 사회적 금융 전문가 부재
 - 비수도권은 전문성 보유한 금융 전문가 고용(고임금)에 어려움
 - 금융기관 출신 인재 영입, 교육 등 관련 전문가 영입 방안 필요

②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 임팩트 투자 개념, 임팩트 투자기관 및 상품 등 임팩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 시행 자체에 대한 인식 역시 낮아, 정책 홍보가 필요해보임
-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선호도에 비해 실제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다른 방식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
- 이는 당사자들의 금융접근성을 취약하게 하여 고금리, 조달규모 등에서 금융비용 과다로 이어짐

< 관련 설문조사 >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서민금융진흥원)

- (투자유치 애로사항)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29.8%가 투자자(기관)의 부족을 꼽았으며, 정보부족과 인식부족도 높은 비중을 차지
 -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자(기관)이 부족하다' 29.8%, '투자자(기관) 유치를 위한 정보(노하우 등)가 부족하다' 23.4%, '투자자(기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2.9%, 기타 23.9% 順
 - 이 외에도 '매출(또는 수익)규모에 따른 획일적 기준' 또는 '신용평가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의견
- 정부가 '18.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3.2% 수준

□ 사회적경제 자원연계 수요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임팩트투자 유치경험) '있음' 3.6%, '없음' 96.4%
- (유치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모름' 52.4%, '필요성 없음' 13.1%, '시도실패' 11.3% 등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수요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자금조달 시 필요한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 확대 69%

< 관련 설문조사(서민금융진흥원) >

- (자금조달 선호도) '대출보증' 30.4%, '지원금' 30.1%, '투자' 23.0%, '자기자본' 15.2%, '기타' 1.3% 順
- (실제 자금조달) '대출보증' 41.4%, '자기자본' 22.3%, '지원금' 21.9%, '투자' 12.9%, '기타' 1.5% 順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규모 불충분

- 기업당 정책출자기관의 투자비중 및 투자금액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다수

< 관련 설문조사(서민금융진흥원) >

- (정책출자기관 투자) 총 투자유치 규모 중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정책출자기관의 투자규모는 '10%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투자규모가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다수
 - * 정책출자기관 투자 비중은 '10% 미만' 51.6%, '10%~30% 미만' 9.7%, '30%~50% 미만' 15.1%, '50%~70% 미만' 8.6%, '70%~100% 미만' 15.1% 順
- 정책출자기관 유치자금 규모에 대하여 '충분하지 않았다.' 62.8%, '충분했다' 32.7% 응답
 - 충분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10억원 ~50억원 미만'이 전체의 46.3% 응답
 - * 단, 투자 유치금은 10억원 이상이 전체의 57.4% 차지

□ 투자 방식에 대한 의견 (서민금융진흥원 설문조사)

- (투자방식) 투자로 자금조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60.3%가 모태펀드와 소셜벤처 캐피탈을 이용(SVC이 31.1%, 모태펀드가 29.1%, CF이 9.3% 등)
- (만족도)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만족도는 ①전반적인 만족도 69.1% ②출자기관 만족도 49.4% 수준

□ 투자 단계별 지원 비중에 대한 의견

- pre A 단계(3~6년차, 1억 ~ 3억)에서의 임팩트 투자는 부진
 - Seed 투자 외에는, 대부분 Series A 단계 이후의 투자가 대부분 (SVS의 경우 pre A 비중은 11.5% 정도)
 -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 및 구체화, 시제품 및 베타 서비스 진행 준비

③ 기타 검토 사항들

□ 사회적 성과 입증(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상 기준 설정 문제

- 임팩트 투자에서의 측정, 평가의 중요성
 - 측정과 평가, 보상 (절대값의 측정? 상대값 평가?)
 - 평가 및 보상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파편화와 통일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정량적 측정의 어려움(SVI, SPC, 신보의 사정기업평가시스템 등)
 -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측정과 평가 및 보상 제도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어려움
- 측정비용의 과다(사회적 경제 기업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비용)

□ 임팩트 워싱 등

- 임팩트투자가 커짐에 따라, 임팩트 워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부당한 투자 유치의 증가 우려
 - 투자업계(PE 등) 중심의 ESG 경영의 도입(출현?) 및 혼란 노정

< 관련 설문조사(사회적 금융 포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 9개(36.0%), '공통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언어)의 부족'과 '기타' 각각 3개(12.0%) |
|---|

□ 사회적 금융은 원래의 취지/배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규모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회적 금융이 얼마나 효과적·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 법·제도의 경로 의존성, 동형화에 따른 경직성과 비효율에 대한 대처와 변화 전략의 필요(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끝.

붙임1

모태펀드 출자 현황

< 모태펀드 출자 현황 ('20.9. 기준) >

(단위: 억원)

조합원명	출자약정금	
	금액	비율(%)
한국벤처투자(주)	1	0.00
중소기업진흥공단	39,890	68.21
특허청	2,100	3.59
문화체육관광부	7,731	13.22
영화진흥위원회	2,320	3.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15	3.79
고용노동부	175	0.30
보건복지부	800	1.37
국민체육진흥공단	770	1.32
교육부	570	0.97
환경부	810	1.38
해양수산부	400	0.68
국토교통부	700	1.20
계	58,482	100.0

붙임2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운영 현황

<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운영 현황 ('20. 기준) >

('11~'20년 기준)

구분 (결성일)	총액(억원)	민간 출자자	주 목적 투자대상
제1호 ('11.6.22)	42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증권 등	①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③ 소셜벤처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④ 투자대상선정위원회 인정기업 등
제2호 ('12.9.6)	40	미래에셋벤처투자, 행복나래 등	
제3호 ('13.11.27)	60	포스코기술투자, 우리은행 등	
제4호 ('15.2.2)	40	클리코너인베스트먼트, 행복나눔재단 등	
제5호 ('18.11.7)	108	포스코기술투자, 우리은행 등	①~④ ⑤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목적 추구하는 기업
제6호 ('20.11.)	58	임팩트스퀘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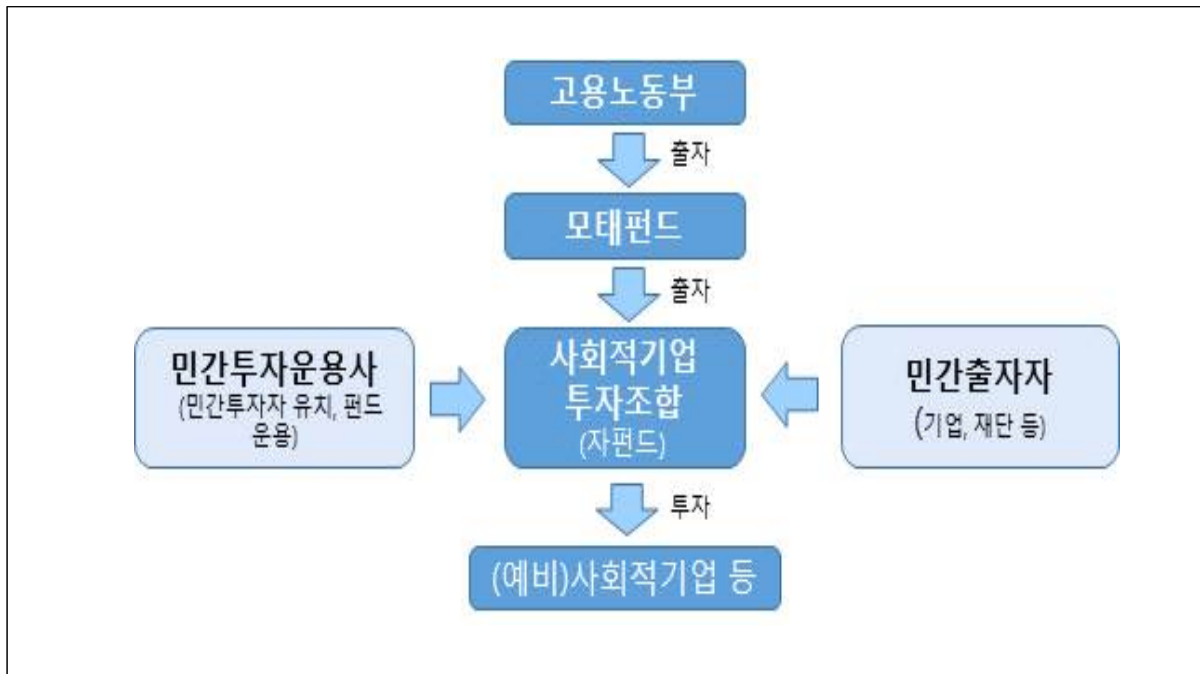
□ (모태펀드의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모태펀드 운용기관) (주)한국벤처투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05.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모태펀드 관리·운영

<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추진체계 >



붙임3

자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조성 현황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조성 현황 ('20년 기준) >

구분	세부구분	기금명	설치년도	기금규모	비고
광역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2	880억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2016	250억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2018	10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19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	5년간 60억 조성 예정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	5년간 150억 조성 예정
기초	서울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7.5억	
	서울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5	14억	
	서울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36.5억	
	서울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6	3억	
	경기 성남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0	20억	
	경기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600억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1	11억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8억	

붙임4

진흥원 크라우드 펀딩 진행 현황

< 진흥원 크라우드펀딩 진행 현황 ('20년 기준)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권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참여유형	후원형 증권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참여기업 수 (개) * 프로젝트 수 기준	108		115		116			162		
	14	94	5	15	95	7	23	120	9	33
성공기업 수 (개) * 프로젝트 수 기준	44		64		62			122		
	9	35	4	12	48	5	21	82	9	31
성공률 (%)	40.74		60.00		53.4			75.3		
펀딩 금액 (백만원)	695		1,151		1,711			2,202		
	516	179	274	536	340	407.1	1,097.9	409	906	887
총 투자자수 (명)	3,139		7,075		2,941			4,410		
1인당 평균 투자금액 (천원)	221		162		582			499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20년 기준, SVS 홈페이지 참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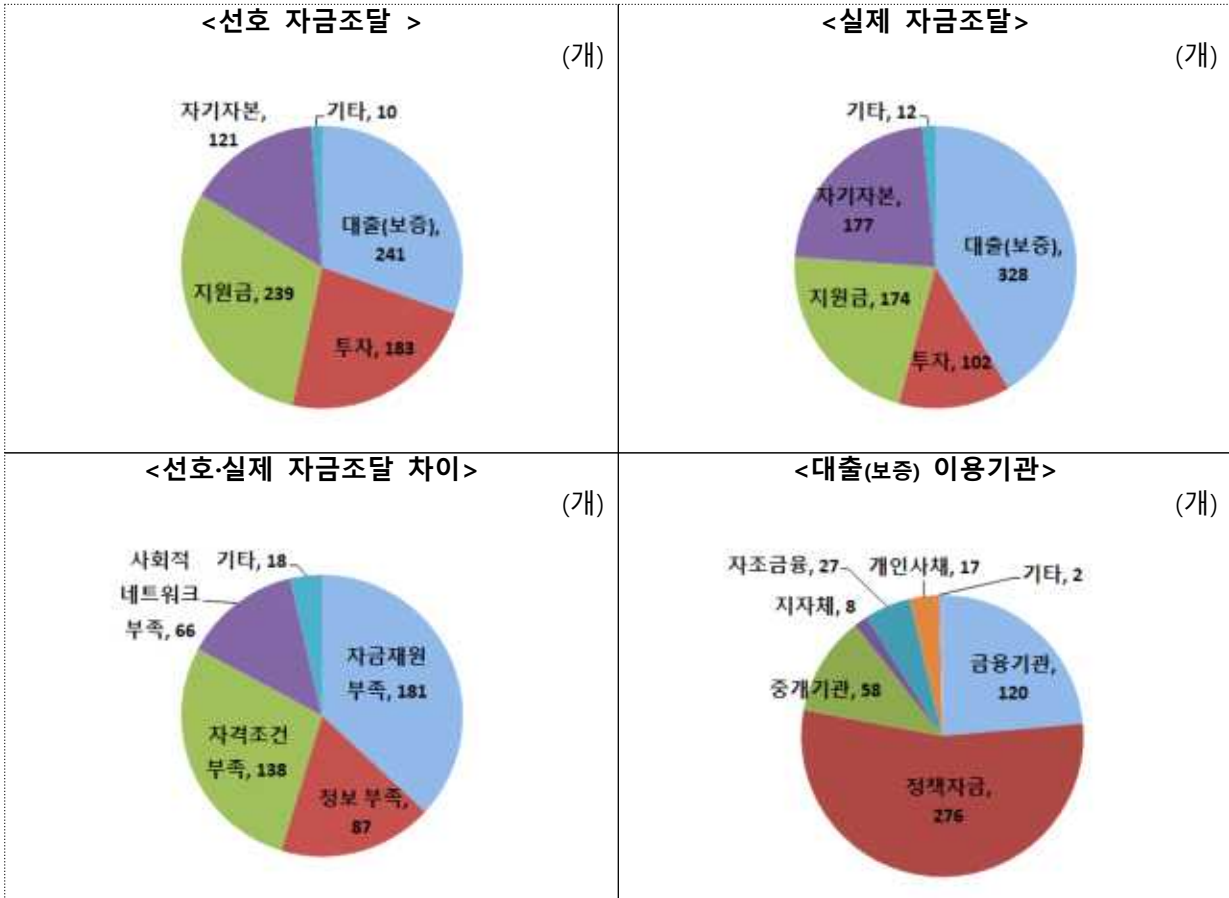
구분	지역	기관명	지원대상	
SVS	서울(전국)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	
지역기반	경남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부산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경북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충북	(사)사람과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천	(사)함께일하는인천사람들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광주	나눔대부와사회연대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제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서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	
대출중심	서울(전국)	한살림펀딩 주식회사, 솔라브릿지, 북서울신협, 루트에너지, 동작신협, 논골신협, (사)피피엘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함께일하는재단, (주)비플러스, (재)한국사회투자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사)나눔과미래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기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적기업	
		전국주민협동연합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	
투자중심	경북(전국)	포스코기술투자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타	
	경기(전국)	와디즈벤처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타	
	서울(전국)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퓨처플레이, 크레비스파트너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임팩트스퀘어,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신한대체투자운용사, 시몬즈자산운용,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미시간벤처캐피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다담인베스트먼트, 소풍벤처스, 엠와이소셜컴퍼니, IFK임팩트금융, IBK투자증권, HGI, (주)디스리주빌리파트너스,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타	
		서울(전국)	(주)오마이컴퍼니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전국	팬임팩트코리아	기타
SIB	경기도	(주)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서민금융진흥원, '21.2.)

□ (조사개요) 사회적금융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387 개소 대상 설문조사

□ 자금조달 방식 (응답자: 3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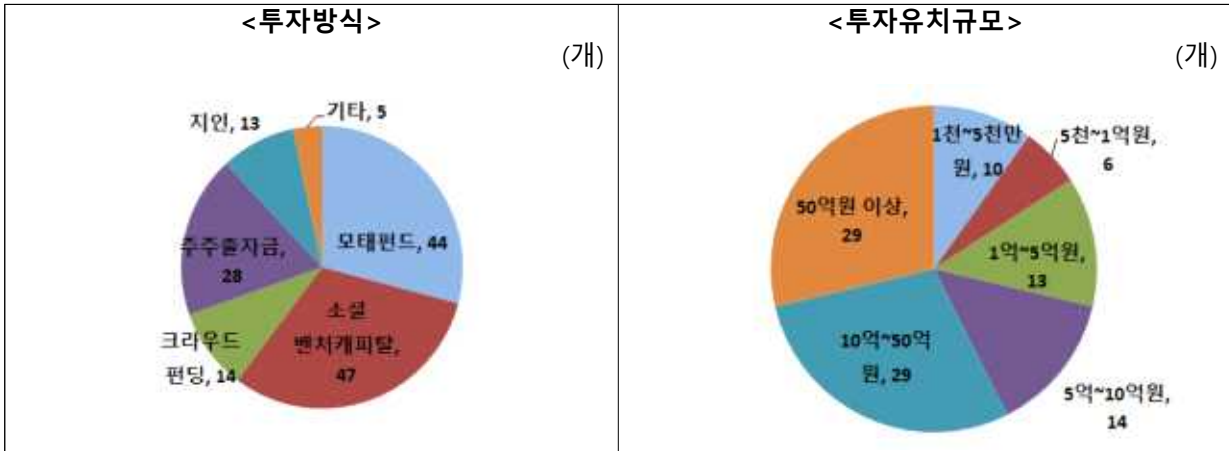
- (자금조달 선호) 원하는 자금조달 방식 중 투자: 23%
 - * '대출(보증)' 30.4%, '지원금' 30.1%, '투자' 23.0%, '자기자본' 15.2%, '기타' 1.3% 순
- (실제 자금조달) 실제 자금조달 방식 중 투자: 12.9%
 - * '대출(보증)' 41.4%, '자기자본' 22.3%, '지원금' 21.9%, '투자' 12.9%, '기타' 1.5% 순
- (차이) 원하는 자금조달 방식과 실제 조달방식이 차이가 있는 이유: '자금 재원이 부족' 36.9%, '정보 부족' 17.8%
 - * '자금재원 부족' 36.9%, '자격조건 부족' 28.2%, '재원조달에 대한 정보 부족' 17.8%, 기타 17.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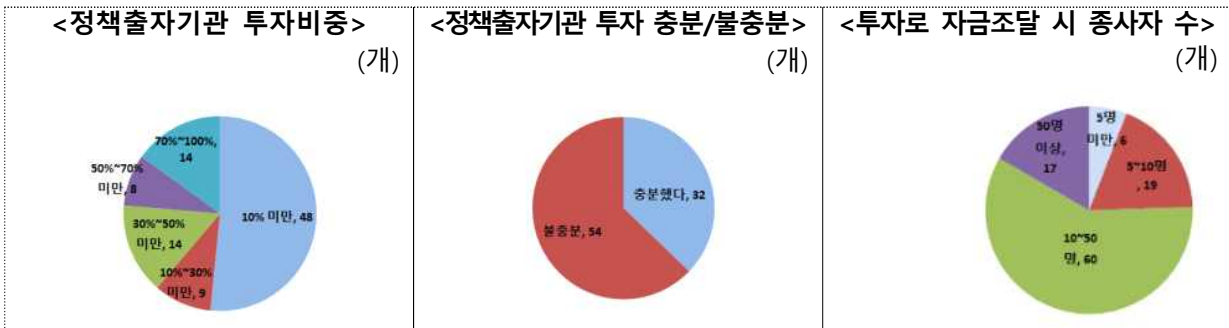
□ 투자 관련 설문 (응답자: 실제 자금조달로 투자를 이용하는 50명)

- (투자방식) 투자로 자금조달을 한 이용자의 60.3%가 모태펀드와 소셜벤처캐피탈을 이용
 - * '소셜벤처캐피탈' 31.1%, '모태펀드' 29.1%, '주주출자금' 18.5%, '클라우드펀딩' 9.3%, '지인' 8.6%, '기타' 3.3% 순
- (투자유치규모) 투자 유치금은 '10억원 이상'이 전체의 57.4%
 - * '10억원~50억원 미만' 28.7%, '50억원 이상' 28.7%, '5억원~10억원 미만' 13.9%, '1억원~5억원 미만' 12.9%

'1천만원~5천만원 미만' 9.9%, '5천만원~1억원 미만' 5.9%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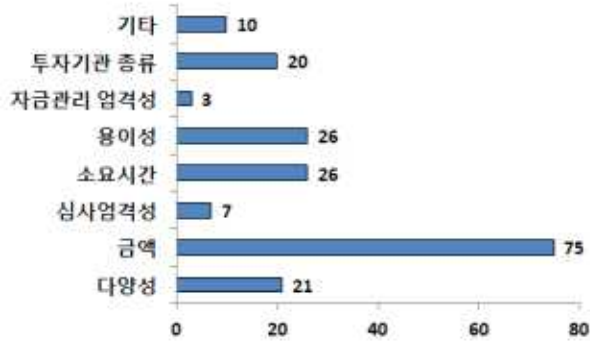
- (정책출자기관 투자) 총 투자유치 규모 중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정책출자기관의 투자규모는 '10%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투자규모가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다수
 - * 정책출자기관 투자 비중은 '10% 미만' 51.6%, '10%~30% 미만' 9.7%, '30%~50% 미만' 15.1%, '50%~70% 미만' 8.6%, '70%~100% 미만' 15.1% 順
- 정책출자기관 유치자금 규모에 대하여 '충분하지 않았다.' 62.8%, '충분했다' 32.7% 응답
 - 충분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10억원 ~50억원 미만'이 전체의 46.3% 응답
 - * '10억원~50억원 미만' 46.3%, '1억원~5억원 미만' 16.7%, '5억원~10억원 미만' 16.7%, '5천만원~1억원 미만' 13.0%, '50억원 이상' 5.6%,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9% 順



- (투자고려사항) 투자유치 시 '투자금액'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 * '투자금액' 39.9%, '투자에 걸리는 시간' 13.8%, '투자유치 용이성' 13.8%, '투자의 다양성' 11.2%, '투자기관 종류' 10.6%, 기타 10.6% 順
- (투자만족도)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만족도는 전반적인 투자 '만족' 69.1%, 정책출자기관 '만족' 49.4% 수준
 - * 전반적인 투자 만족도는 '매우만족' 25.5%, '만족' 43.6%, '보통' 26.6%, '불만족' 3.2%, '매우불만족' 1.1% 順
 - * 정책출자기관 투자 만족도는 '매우만족' 19.5%, '만족' 29.9%, '보통' 40.2%, '불만족' 6.9%, '매우불만족' 3.4% 順

<투자 고려사항>

(개)



<전반적인 투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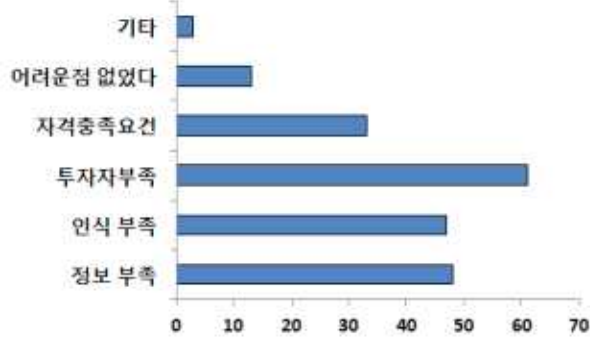
(개)



- (투자유치 애로사항)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29.8%가 투자자(기관)의 부족을 꼽았으며, 정보부족과 인식부족도 높은 비중을 차지
-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자(기관)이 부족하다' 29.8%, '투자자(기관) 유치를 위한 정보(노하우 등)가 부족하다' 23.4%, '투자자(기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2.9%, 기타 23.9% 順
- 이 외에도 '매출(또는 수익)규모에 따른 획일적 기준' 또는 '신용평가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의견
- 정부가 '18.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3.2% 수준

<투자 자금조달 시 어려운 점>

(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 인지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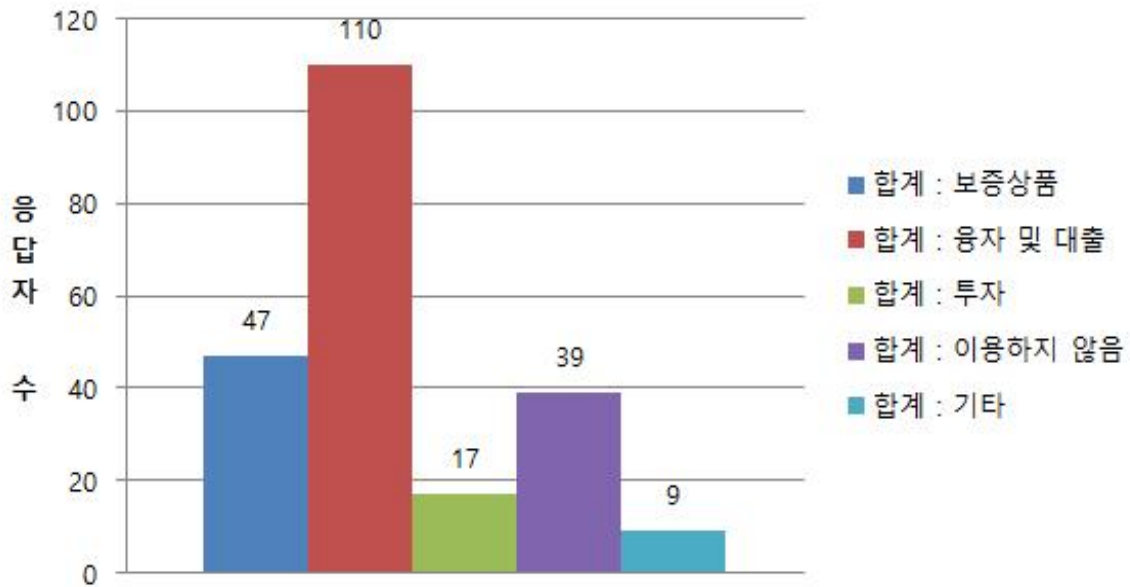


② 사회적경제 자원연계 수요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5.)

□ (조사개요)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대표 등) 168명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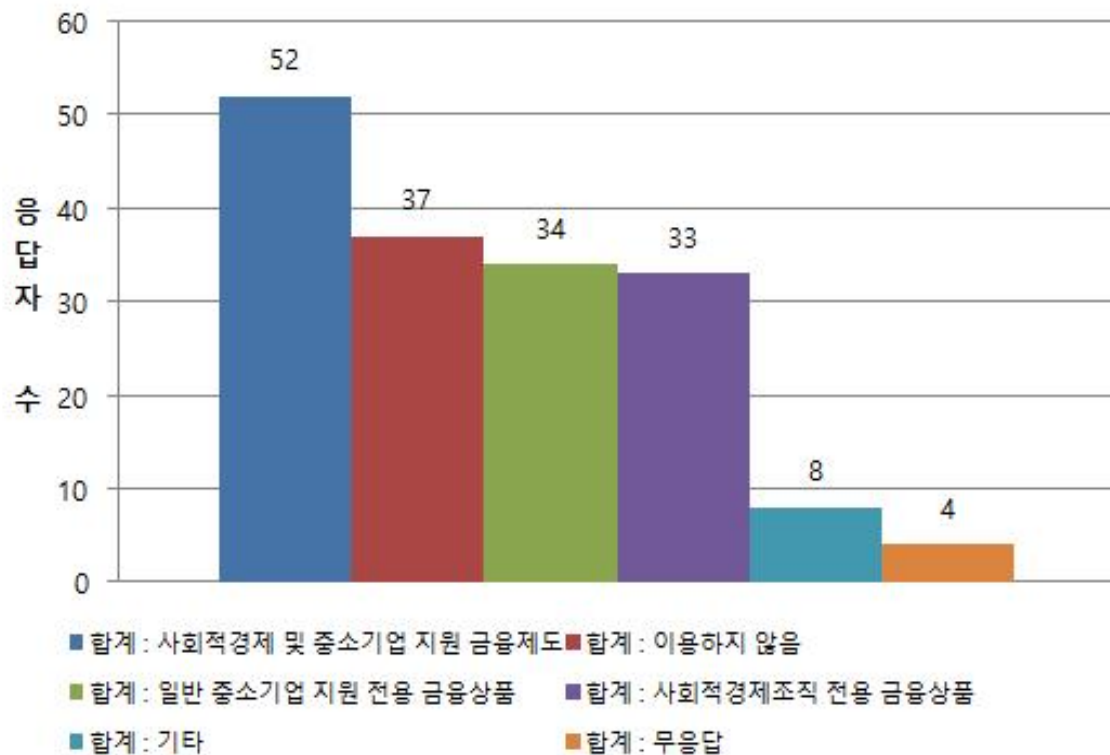
○ (주로 이용하는 자금조달 방법) '용자·대출' 49.5%, '보증상품' 21.1%, '투자' 7.6% 순

<선호 자금조달 방법>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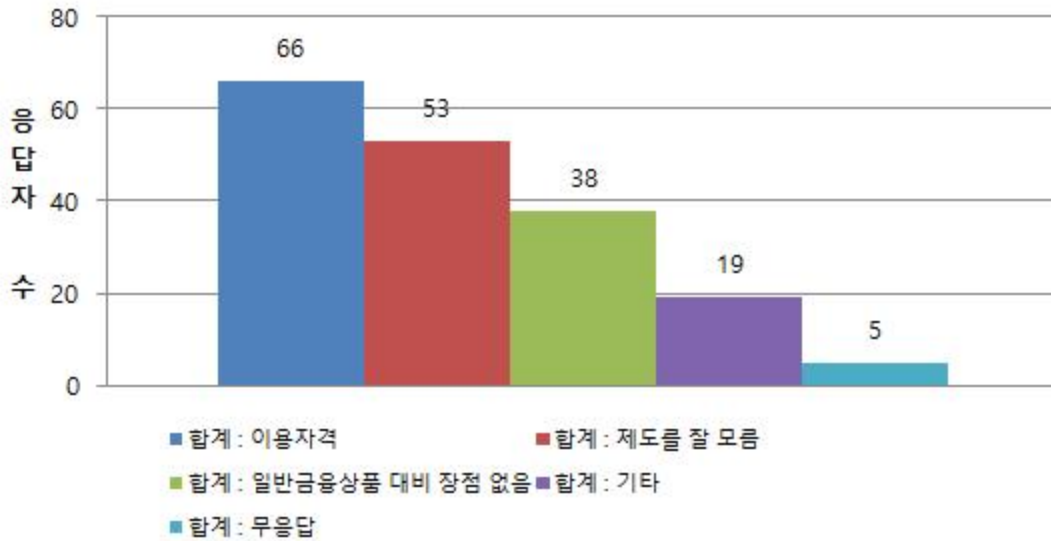
□ (선호하는 금융상품)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상품을 가장 선호하는 비율은 19.6%

<선호하는 금융상품> (복수응답)



□ (금융상품 이용 애로사항) '이용자격 충족 어려움'이 36.5%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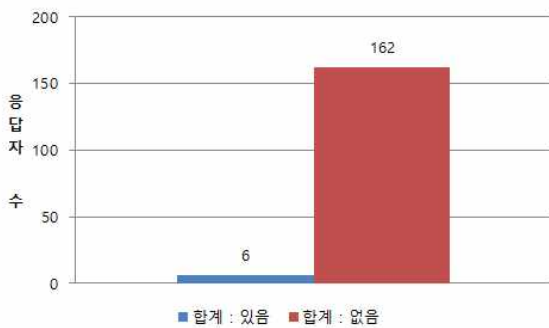
<금융상품 이용 애로사항>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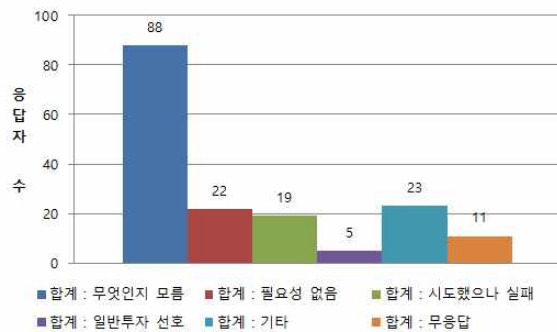
□ 임팩트투자 관련

- (유치경험) '있음' 3.6%, '없음' 96.4%
- (유치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모름' 52.4%, '필요성 없음' 13.1%, '시도실패' 11.3% 등

<임팩트 투자 유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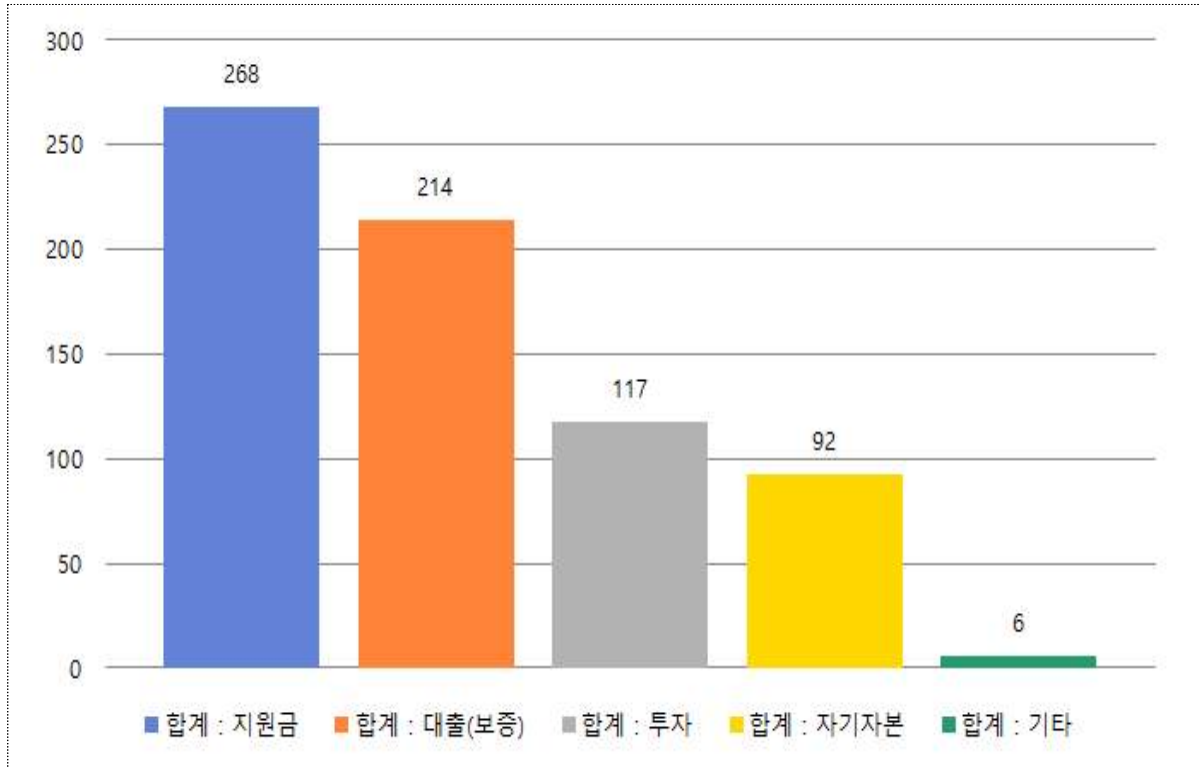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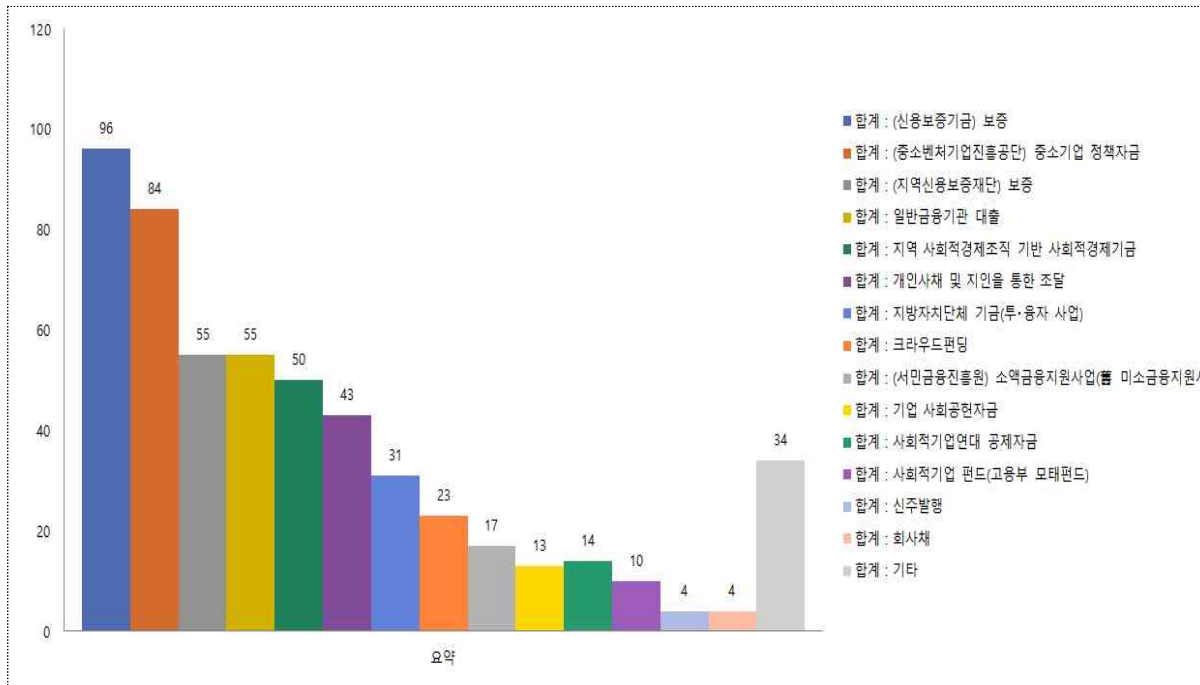
③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수요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4.)

□ (조사개요)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대표 등) 359명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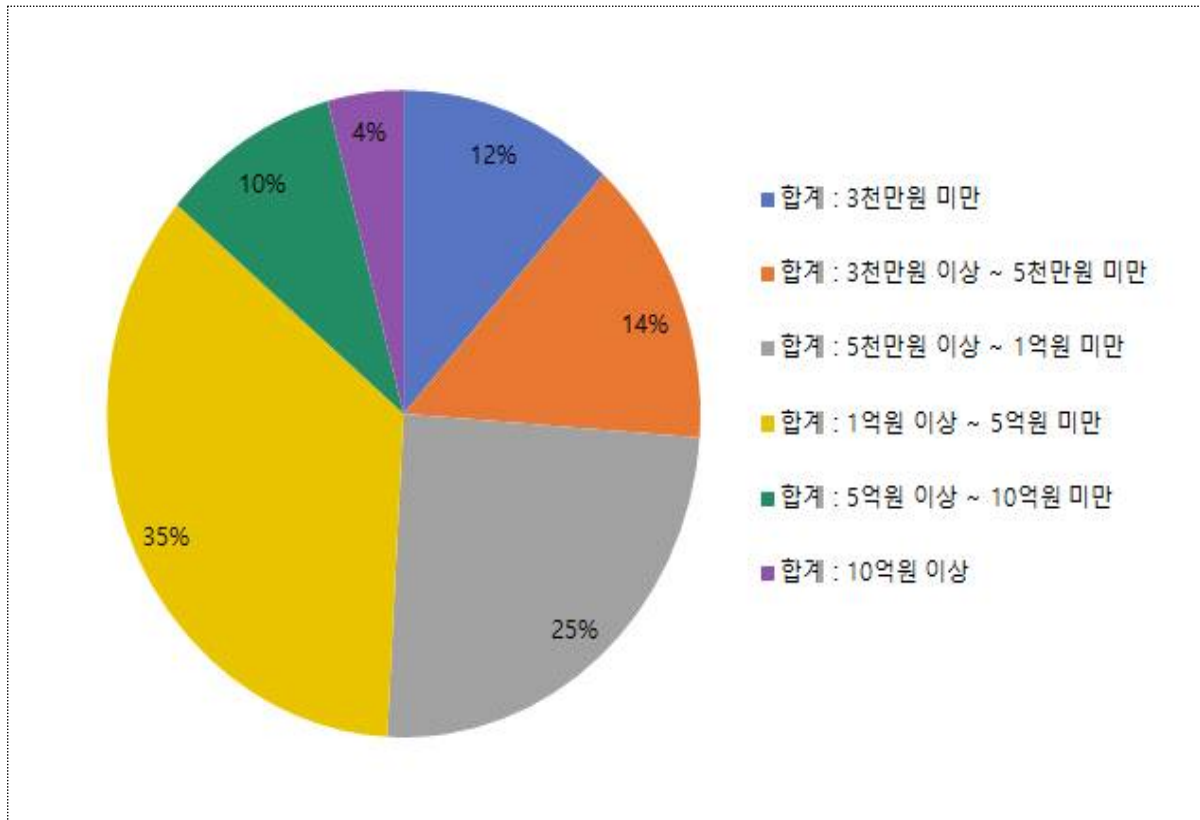
□ 선호 자금조달 방식: 지원금 80%, 대출(보증) 63.9%, 투자 34.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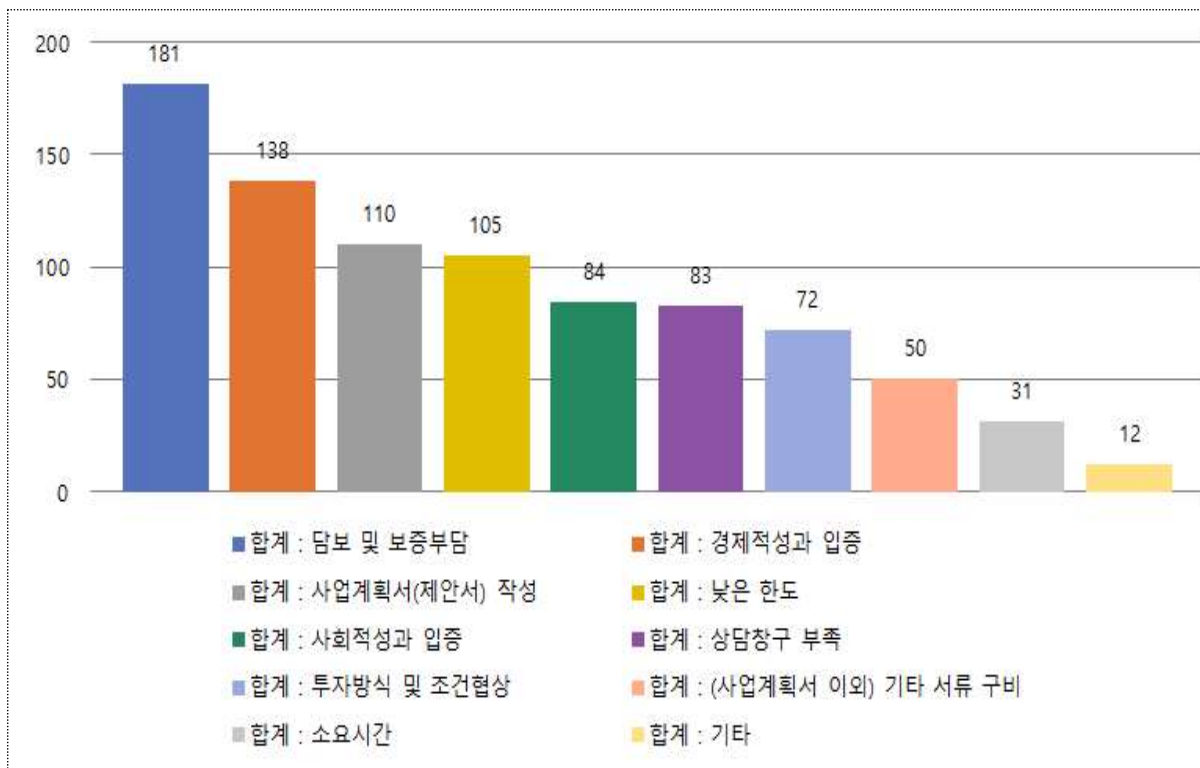
○ 주된 자금조달 방법: (신보)보증 30.8%, (중진공)중소기업 정책자금 26.9%, (지신보)보증 일반금융기관 대출 17.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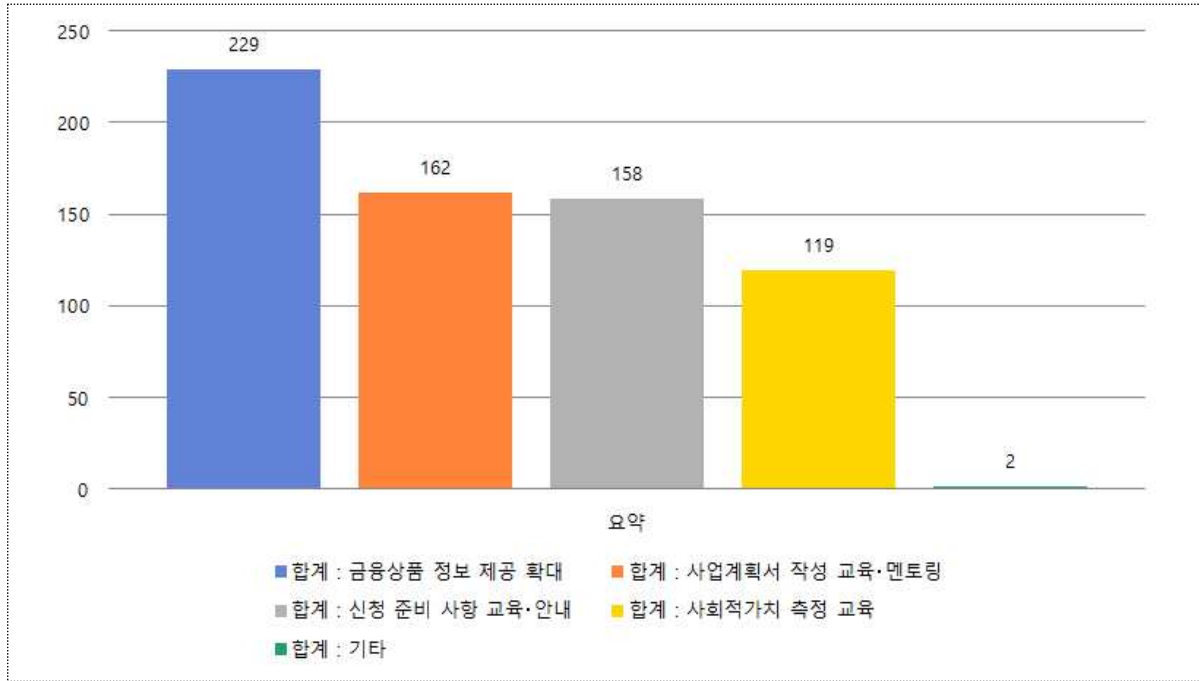
- 필요 자금규모: 1억원~5억원 미만 35.3%, 5천만원~1억원 미만 24.7%,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4.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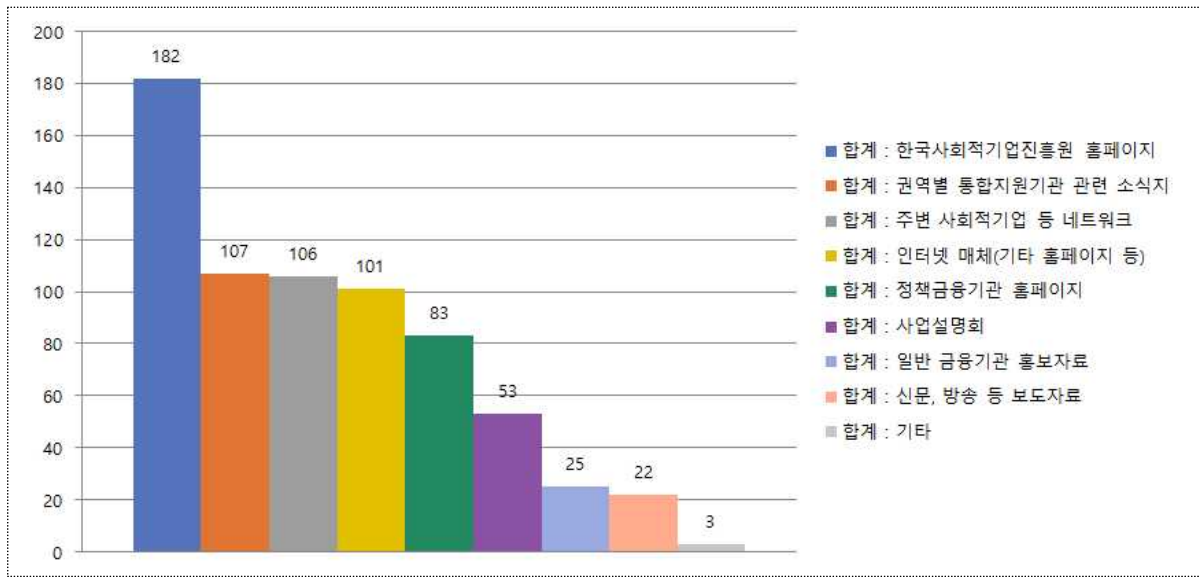
- 자금조달시 어려움: 담보 및 보증부담 53.9%, 경제적성과 입증 41.1%, 사업계획서(제안서) 작성 32.7% 순



- 자금조달 시 필요한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 확대 69%,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멘토링 48.8%, 신청 준비 사항 교육·안내 47.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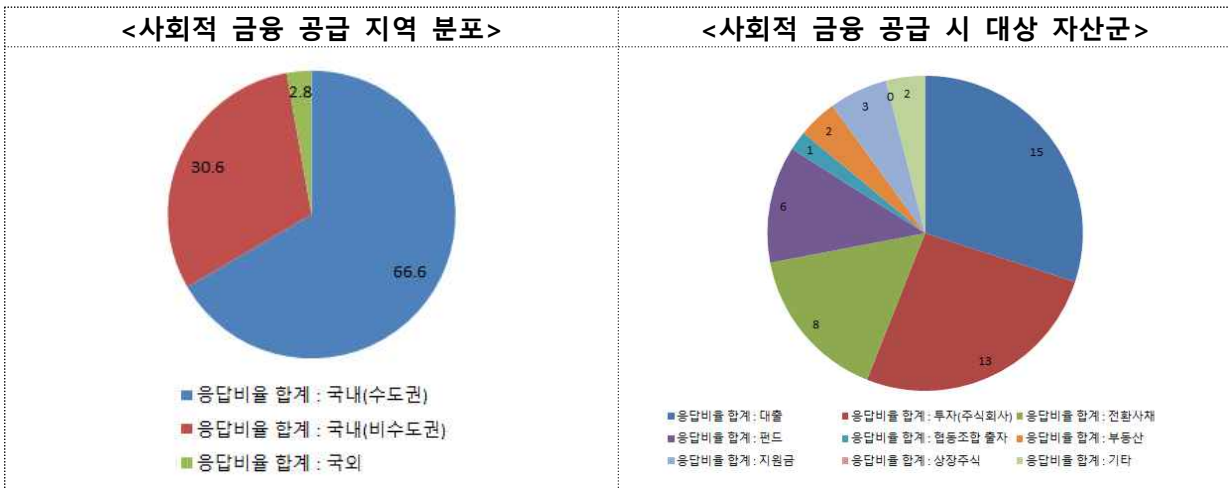
- 자금조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진흥원 홈페이지 54.3%, 통합지원기관 관련 소식지 31.9%, 주변 사회적기업 등 네트워크 31.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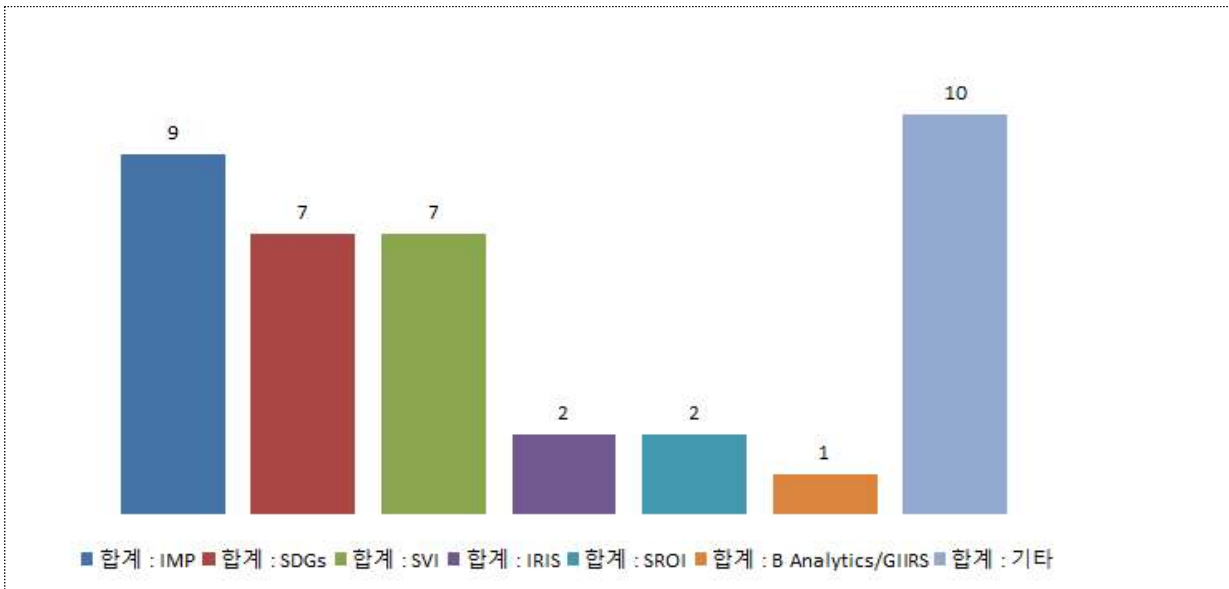
4 2020 사회적금융 서베이(사회적금융포럼, '20)

□ (조사개요) 사회적금융기관 총괄책임자 25명 대상 설문조사

- (사회적 금융 공급 지역 분포) 수도권 지역이 66.6%
 - 23개 기관중에서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금융 공급을 50%이상 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5개
- (사회적 금융 공급 시 대상 자산군) '대출' 28.8%, '투자(주식회사)' 25.0%, '전환사채' 15.4%, '펀드 출자' 11.5%



-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체계 활용) 전체 25개 중 21개(84.0%)
- (가장 많이 활용하는 측정·평가체계) 'IMP' 9개(23.7%), '기타' 8개(21.1%), 'SDGs' 7개(18.4%) 'SVI' 7개(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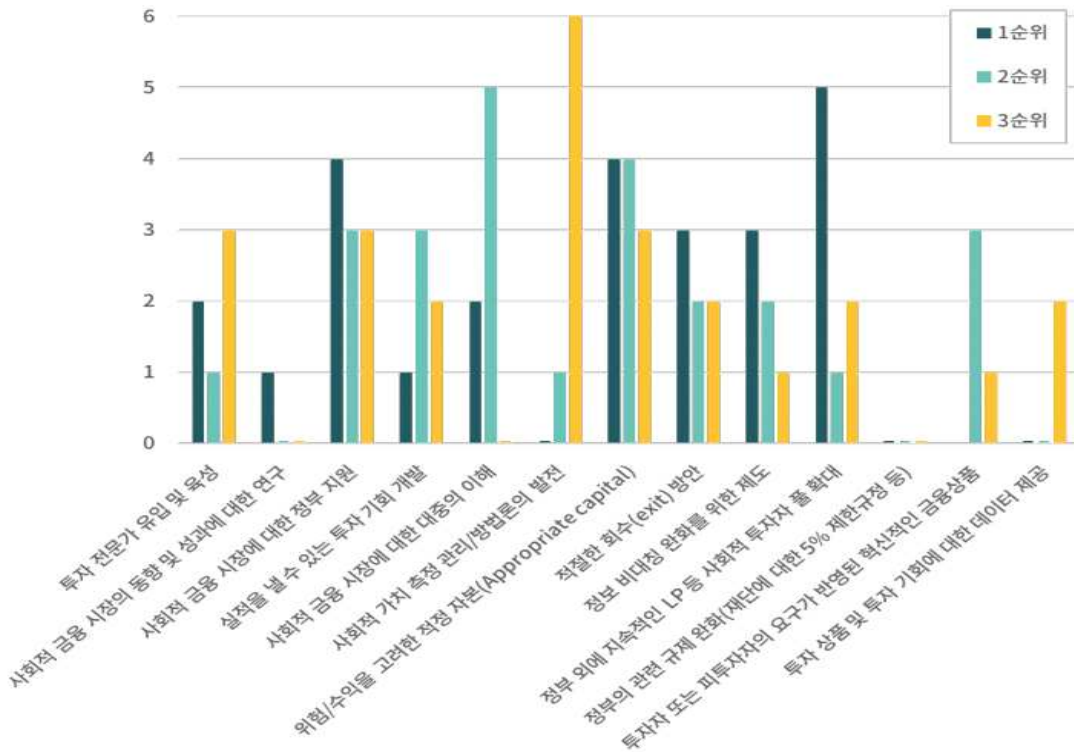


-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1순위) '정부 외에 지속적인 LP 등 사회적 투자자 풀 확대' 5개 기관(20.0%),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과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각각 4개 기관(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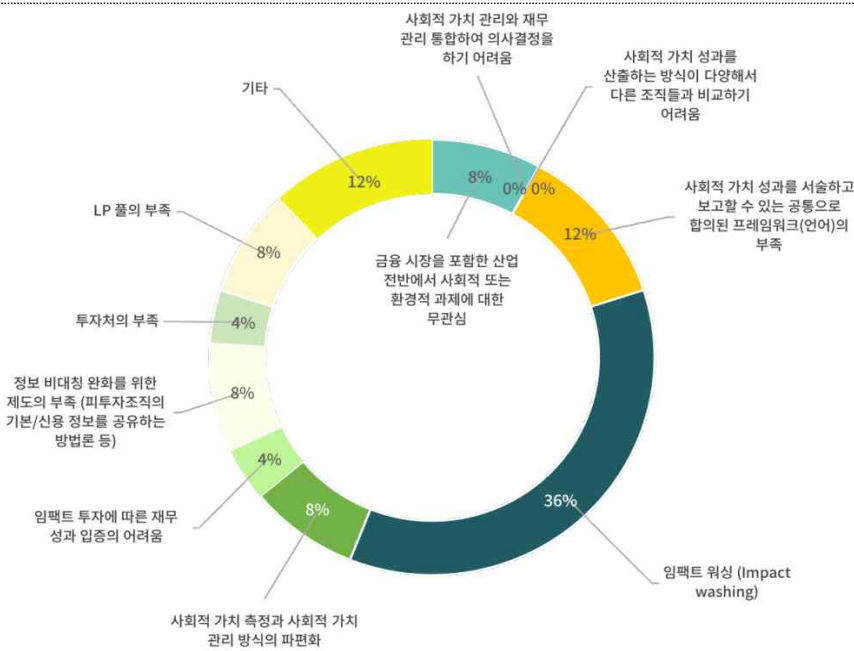
- (2순위) '사회적 금융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 5개 기관(20.0%), '위험/수익을 고려한 적정 자본(Appropriate capital)' 4개 기관(16.0%)
- (3순위) '사회적 가치 측정 관리/방법론의 발전' 6개 기관(24.0%)

사회적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n=25)



□ 향후 5년간 사회적 금융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 9개(36.0%), '공통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언어)의 부족'과 '기타' 각각 3개(12.0%)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투자팀장 박정환

● **임팩트투자의 요소**

- 투자목적 및 의도(intentionality)
- 투자 기대수익(investment with return expectation)
- 기대수익 및 자산유형의 범위(range of return expectations and asset classes)
- 임팩트 측정(impact measurement)

GIIN 홈페이지(<https://thegiin.org/impact-investing/need-to-know/#characteristics-of-impact-investing>)



이 4가지 요소의 증대 or 명확화 = 임팩트투자 활성화



HOW? : 임팩트투자 속성 및 동향 파악 + 현장의 목소리 = 대응기제

● **임팩트투자의 속성**

구분	가치창출 주체와 가치귀속 주체의 일치여부	임팩트 대체 가능성
전통적 투자	일치	재무적 성과에 따라오는 임팩트 유지
임팩트 투자	불일치	전통적 투자가 창출하는 임팩트를 넘어서야 임팩트 대체성 획득

(박종원·이우백, 2018:270의 내용을 토론자가 표로 정리)

● **임팩트투자의 동향**

따라서, **임팩트 측정과 평가가 더욱 강조됨**

- (기존) 저개발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문제(기후환경 문제포함)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 (현재) 임팩트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동체개발, 사회·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개입영역 확장
 (장성인 외, 2020)

● 현장의 목소리

- 임팩트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식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중소·벤처기업 인프라 그대로 활용
⇒ 법인격에 따라 수혜대상 편중(2021 사회적금융비전토론회, 임팩트스퀘어)
 - ✓ 사회적경제기업의 60%가 주식회사 법인
 - ✓ 협동조합은 용자는 가능하나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우선출자제 등 대안적 자금조달 활성화 및 개발 필요
(2019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토론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임팩트투자사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리적 소재 미스매칭
⇒ 인증 사회적기업 2,451개 중 60%(1,462개)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에 위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 소셜벤처 998개 중 67%가 서울 외 지역에 위치(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2019)
 - ✓ 지방은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공급 부족
 - ✓ '로컬 주목적' 임팩트투자펀드는 2021년 기준 총 352억원에 불과(2021 사회적금융비전토론회, MYSC)

●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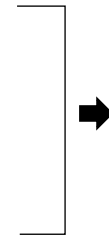
- 지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이유
 - ✓ 임팩트투자사 서울집중
 - ⇒ 심사역의 지역기업 방문 및 관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추가소요(블라인드펀드의 한계)
 - ✓ 지역기업 중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 창출 사례 부족
 - ✓ 20~35억원 펀드규모로 운용사(GP) 찾기 어려움(예: 20억의 2.5% 운용수수료의 경우 5천만원)
 - ✓ 주목적 투자가 '지역기업' 인 경우 유한책임조합원(LP) 구하기 어려움(MYSC)
- 공공재원이 투입된 임팩트투자의 성격상 사회가치창출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
 - ✓ 사회가치측정을 통한 투자는 오히려 지역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긍정적
 - ⇒ 그러나 사회가치측정의 어려움으로 임팩트워싱(Impact washing) 문제 대두 가능성 존재

● 현장 목소리에 대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대응

- (이슈1) 주식회사에 편중된 임팩트투자, 협동조합과 사회목적 프로젝트 자금조달 공백
 ➔ [SVS대응] 안산·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관출자, 로컬메이트펀딩, 시민자산화대출

- (이슈2) 임팩트투자사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리적 소재 미스매칭

- ✓ 임팩트투자사 서울집중으로 인한 서비스 근접성 저하
- ✓ 지역기업 중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 창출 사례 부족
- ✓ 20~35억원 펀드규모로 운용사(GP) 찾기 어려움
- ✓ 주목적 투자가 '지역기업' 인 경우 유한책임조합원(LP) 구하기 어려움



[SVS대응]

- 경남청년임팩트펀드 출자(myisc)
- 강원피크닉펀드 출자(spoong)
- +
- 지역 중개기관 육성사업 전개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출자/대출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매칭 대출

- (이슈3) 임팩트워싱

- ➔ [SVS대응] 중개기관 임팩트KPI 설정 유도, 피투자기업 기보 소셜벤처판별 정보공유, 임팩트 리포트 발간

- 남은 과제(정책 과제)

- 금융 구조화 확장

- ✓ 정부 뉴딜사업 등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및 시민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 구조화 확장 필요
- ✓ 사회적 경제 현장의 니즈와 결합한 다양한 금융 구조화 방식 개발과 적용으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필요
- ✓ 사회적경제 전문 P2P금융기관 육성·협력을 통한 로커베스팅 활성화로 사회적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 확충

- 지자체 기금 협력모델 확장

- ✓ 정부·지자체 도매기금 출연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민간위탁 제약사항 개정
-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 기금 협력 모델 확산
- ✓ 지자체 기금 운용 중개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수립

- 남은 과제(정책 과제)

- 사회적서비스 사회적기업 전용펀드 추진

- ✓ 액셀러레이터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를 통한 Pre-A단계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전문투자펀드 추진
- ✓ 크라우드펀딩(기부, 후원, 대출)+지원금+지분투자 등 'blended financing'을 기반으로 자금공급효과 극대화 필요
- ✓ 크라우드펀딩을 딜소싱 채널로 활용하되 펀드 운용사(액셀러레이터)의 지속적 Input으로 Series A 이상 성장견인

- 핵심테마별 전용기금 조성

-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제로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의 주축으로 에너지 협동조합 전용기금 조성
- ✓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 촉진 위한 의료사협 자산화 전용기금 조성
- ✓ 그린뉴딜 분야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 남은 과제(정책 과제)

• 사회적 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관리체계 제도화

- ✓ 사회적 금융 전문가 제도 기획 시 사회적금융 도매기금,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대학 등과 협의 필요
- ✓ 사회적 금융 인식 확산과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 사회적 금융 전문가 회원제도 등 다양한 질 관리 방안 검토

• 사회적 금융 사회가치 및 통계 보고 체계 구축

-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도매기금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금융 통계체계 구축
- ✓ 임팩트 투자의 성과가 생성·공유되는 Open Innovation 구조화
- ✓ Impact KPI 설정 및 리포팅 체계 정립

감사합니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투자팀장 박정환